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The 100 Relic Collection of
the Gangjin Celadon Museum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강진청자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The 100 Relic Collection of
the Gangjin Celadon Museum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The 100 Relic Collection of
the Gangjin Celadon Museum

발간사

전남 강진은 천년의 신비를 자랑하는 고려청자의 성지로 고려시대 왕실관요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9세기경 부터 14세기 초까지 고려청자를 집단적으로 생산했던 곳으로 당시의 가마터 188기가 보존되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강진청자박물관은 1997년 9월 3일 고려청자 테마박물관으로 개관한 이후 그동안 발굴하고 수집해온 고려청자 완품과 파편 등 3만 2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창조적 예술 혼과 뛰어난 조형미가 돋보이는 고려청자 유물 100점을 엄선해 강진청자박물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는 「소장 유물 100선」도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장품 도록 발간으로 옛 도공들의 숨결과 장인의 혼을 대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고려청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학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강진청자박물관이 우리나라 도자기역사를 대표하는 고려청자 연구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록 발간에 도움주신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과 청자박물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12. 5.
강진군수 강진원

Publication Remark

Gangjin in JeonNam has been a mystery for a thousand years as a sacred place of Goryeo Celadon, where the Goryeo Dynasty Royal Kiln was loca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9th century to the early 14th century, the Goryeo Celadon were produced massively and 188 kilns were preserved. Because of this, Gangjin has been preserved as a historical village.

On September 3, 1997, the Gangjin Celadon museum was opened as a Goryeo Celadon theme museum. This museum reserves over 30,200 excavated pieces of Goryeo Celadon fragments as well as fully intact celadon.

100 pieces of Goryeo Celadon were carefully selected. All of these pieces are of academically outstanding beauty and soul, and are of high conservative value. A book titled "100 pieces of preserved relics" will be published to commemorate the 15th anniversary of the museum.

We hope that by publishing this collection, the breath of the old potters and soul of the artisans is felt by the public. With this collection we can create a new public appreciation of the Goryeo Celadon, and utilize various academic activities for the research of Korean Historical Pottery.

In the near future, great effort will be placed in making the Gangjin Celadon Museum into a mecca for research on typical Goryeo Celado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historical pottery. Thanks to Han Seonguk,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stitute, and the Gangjin Goryeo Celadon Museum offices, who helped in the publication of this collection. 🙏

May. 2012
Gangjin Mayor, Gang Jin Won

發刊の辭

全羅南道の康津は千年の神秘を誇る高麗青瓷の聖地として高麗時代の王室官窯があった場所であります。9世紀頃から14世紀初めまで高麗青瓷を組織的に生産した所で、?時の窯址188基が保存されている由緒が深い故郷でもあります。

康津青瓷博物館は1997年9月3日に高麗青瓷専門の博物館として開館して以降、これまで發掘などを通して蒐集してきた高麗青瓷の完形品と破片など3万200点余りの遺物を所藏しております。

そのうち、學術的に保存價值が高く創造的な芸術精神と優れた造形美が際立つ高麗青瓷100点を厳選し、康津青瓷博物館の開館15周年を記念する『所藏遺物100選』?録を發刊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今回の所藏品?録の發刊を通して多くの人?がいにしへの職人たちの息遣いと魂に?れることができる機会となり、高麗青瓷の新たな價值を創出し多様な學術研究に活用されることを期待します。

今後、康津青瓷博物館が韓國の陶瓷器の歴史を代表する高麗青瓷研究のメッカと生まれ?わるようさらなる研鑽を積むことをお約束するとともに、?録の發刊に援助を頂いた韓盛旭民族文化遺産研究院院長と青瓷博物館關係者の方?に感謝の意を表します。🇰🇷

2012. 5.
康津郡守 姜珍遠

发刊词

全罗南道康津是千年神秘而自豪的高丽青瓷的胜地和高丽时期王室官窑所在地。从9世纪左右到14世纪初，这里集中生产了高丽青瓷，保存着当时的188处窑址，是一个历史悠久的陶瓷之乡。

康津青瓷博物馆的前身是高丽青瓷主题博物馆，这里收藏着自1997年9月3日开馆后发掘和收藏的30,200余件高丽青瓷及其碎片等文物。

为了纪念康津青瓷博物馆开馆15周年，我们从馆藏文物中精选具有较高学术保存价值、创造艺术之魂及突出造型美的高丽青瓷文物100件，发行了《收藏遗物百选》图录。

希望通过这次收藏品图录的发行，广大群众能感受到古代陶工的气息和工匠的灵魂，期待能创造出高丽青瓷新的价值，并应用于广泛的学术研究中。

今后，为了使康津青瓷博物馆成为韩国代表性陶瓷高丽青瓷的历史研究中心，我们承诺将做出加倍的努力。最后，向大力支持图录发行的民族文化遺産研究院韓盛旭院長和青瓷博物館有關工作人員表示衷心的感謝! 🇰🇷

2012. 5.
康津郡守 姜珍遠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The 100 Relic Collection of
the Gang jin Celadon Museum

총괄	신상식 강진청자박물관 관장
기획	하정임 전시운영담당, 이재연 학예연구사
본문	하정임, 이재연
감수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표지서체	박신근 우석서예연구원 원장
사진촬영	김광섭 K아트 스튜디오 대표 조성진 터 스튜디오 대표
제작지원	고태훈 지누커뮤니티

일러두기 Rem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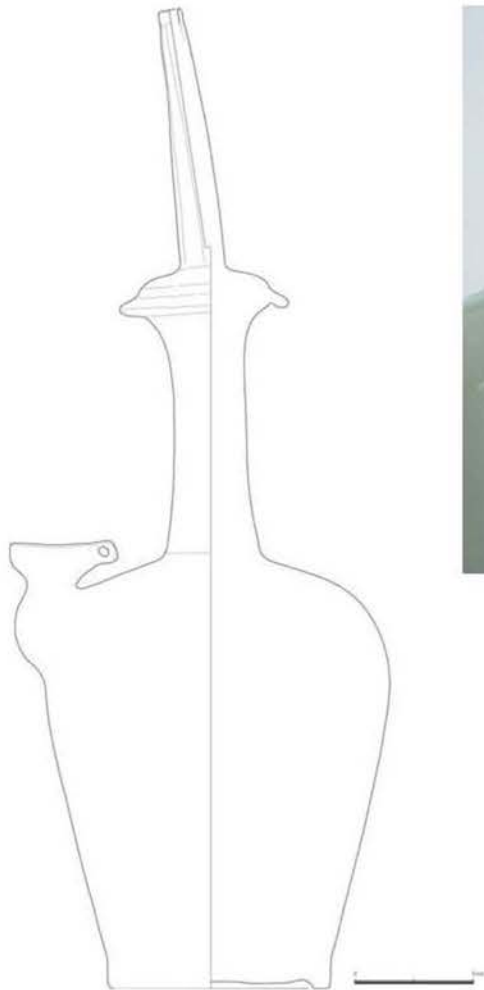
1. 이 책은 강진청자박물관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소장유물 100선에 대한 도록이다.
2. 본문은 각 유물사진과 함께 해설을 같이 수록하여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유물 순서는 정병, 매병, 병, 유병, 오, 주자, 잔탁, 퇴주기, 발, 대접, 완, 잔, 접시, 합 순으로 분류하여 제작시기 순으로 배열하였다.
4. 명제는 유물명(한글, 한문, 영문), 제작시기, 크기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단위는 cm이다.
5. 유물의 명칭과 제작시기, 해설은 본 박물관의 견해에 따랐다. 🌈

Contents



- 004. 발간사
- 009. 유물소개
- 010. 정병
- 012. 매병
- 022. 병
- 041. 유병
- 049. 오
- 058. 주자
- 076. 잔탁
- 080. 퇴주기
- 082. 발
- 094. 대접
- 118. 완
- 136. 잔
- 153. 접시
- 165. 합
- 171. 유물목록





001

청자상감모란문정병

靑瓷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1.1 | 주구 입 지름 3.5 | 몸체 지름 14.5 | 굽 지름 9.4

물을 담는 주구와 물을 따르는 첨대로 이루어진 목이 긴 독특한 형태의 물병이다.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에게 바치는 맑은 물을 담는다는 뜻에서 ‘정병’이라고 한다. 정병은 본래 깨끗한 물을 담는 물병으로 승려의 필수품인 18물(物)의 하나이던 것이, 선종과 관음신앙의 유행으로 차츰 부처 앞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주구에는 뚜껑이 있어 고리를 연결하게 되어 있었으나 결실되었다. 몸체에는 모란꽃을 자유롭게 백상감 하였으며, 가늘고 긴 출수구는 굽는 과정에서 약간 휘어졌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정병」(국보 제92호)이 있다. 🌿





002

청자음각모란문매병

靑瓷陰刻牡丹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40.0 | 입 지름 6.0 | 굽 지름 15.0

몸체에 가득히 모란꽃 무늬를 음각으로 새겨 넣은 매병이다. 어깨부터 다리에 이르는 선은 부드럽지만, 굴곡이 크고 몸체의 중심이 위쪽에 있어 긴장감을 준다. 무늬는 굽 바로 위에 가늘게 한 줄 번개 무늬 띠를 돌린 것 외에는 몸체에 가득하게 모란꽃넙쿨을 음각으로 채워 화려하다. 조각이 능숙하고 속도감이 있으며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실감이 있다. 이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매병 편들이 강진 사당리 23호 가마터에서 확인되고 있다. 태토와 유약은 깨끗한 편으로 잘 녹았으나, 굽는 과정에서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황녹색을 띤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낸 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03

청자철화보상화문매병

靑瓷鐵畫寶相花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Bosang-hwa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24.2 | 입 지름 6.3 | 굽 지름 7.7

입이 작고 어깨와 몸체가 거의 공과 같이 둥그스름하며 굽 아래쪽으로는 큰 굴곡이 없이 사선으로 내려뺀 매병이다. 전형적인 매병의 형태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고려 전기에 많이 볼 수 있다. 매병의 어깨 둘레에는 촘촘하게 국화 이파리 모양의 장식 무늬 띠를 돌렸고, 양감이 풍부하고 원만한 형태의 몸통 전면에는 철화 안료로 보상화와 넝쿨로 이루어진 꽃가지 무늬를 마주 보도록 그려 넣었다. 태토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유약도 잘 녹지 않아 황갈색을 띠고 있어 서늘하고 거친 느낌이 든다. 🌿





004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3.1 | 입 지름 6.0 | 굽 지름 11.8

고려청자 전성기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매병이다. 커다란 몸체에 구름과 학을 넉넉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여백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구름은 위쪽, 학은 아래쪽에 서로 엇갈리게 새겨 빈 공간에 균형감을 주었다. 구름은 아래에서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구불구불하게 표현되었고, 학은 깃털에서 발톱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창공을 나는 모습과 날기를 멈추고 내려서려는 모습 등 각각 다양한 자세로 새겨져 있어 매병의 단아한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유약은 일부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갈색을 띠기도 한다. 🌈





005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3.0 | 입 지름 5.5 | 굽 지름 12.1

입과 몸체의 비례가 조화롭고 전체적인 곡선의 흐름이 아름다운 고려청자 전성기의 매병이다. 넓고 둥근 몸체 전면에 구름과 학을 배치하여 여유롭고 단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굽 쪽에서부터 구불구불한 구름이 영지버섯 모양으로 피어오르게 새겼다. 또한 위쪽의 구름은 흰색으로 아래쪽 구름은 검은색으로 각각 상감하였는데, 청자의 푸른빛이 마치 푸른 창공에 떠 있는 구름을 연상시킨다. 태토는 곱지만 유약에는 철분이 많은 듯 어두운 녹색을 띠는 부분이 있다. 🌈







006

청자상감용문매병

靑瓷象嵌龍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Dragon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33.4 | 입 지름 6.4 | 굽 지름 10.5

고려시대 말 상감청자가 쇠퇴하여 분청사기로 변모해가는 시기에 만들어진 매병이다. 전체적인 형태가 만들어내는 완만한 S자 곡선이 아름답다. 몸체에는 여의주를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구불거리는 용의 모습을 등근 매병의 몸체에 빙 둘러 새겨 넣었다. 용의 등과 여의주에서는 나뭇가지와 유사한 형태의 구불구불한 서기(瑞氣)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 매병은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 구상마을에서 '청자상감국화문접시' (청자박물관 소장유물)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동체와 구연의 일부는 수리하였다. 굽은 바닥을 편평하게 만든 평저형이며 모래를 받쳐 구웠다. 🇰🇷





007

청자반양각연판문광구병

靑瓷半陽刻蓮瓣文廣口瓶

Celadon Bottle with Half-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1세기 | 높이 25.2 | 입 지름 7.5 | 굽 지름 9.0

몸체가 각이 져 있으며 꺾인 입술을 가진 목이 긴 병이다. 목은 거의 원통 모양으로 좁고 길며, 그 위로는 쟁반처럼 편평하다가 꺾여 올라간 입을 붙였다. 어깨에는 음각으로 둥글게 흰 선을 둘러 연꽃잎의 가장자리를 표현하였고, 세로로 음각의 선을 그어 여백을 메웠다. 그 아래로는 널찍하게 면을 깎아 연꽃 잎맥을 나타냈다. 그로 인해 잎맥이 세로로 도드라지게 되어 몸통 전체가 커다란 한 송이의 연꽃처럼 입체감이 있어 보인다. 태토에는 굵은 모래와 철 반점이 많이 섞여 있고 유색 또한 고려 전기에 보이는 황갈색을 띠고 있다. (이영탄 기증) 🇰🇷





008

청자철화'금'명광구병

靑瓷鐵畫'金'銘廣口瓶

Celadon Bowl with Underglaze Iron-Painted Inscription of 'Geum'

고려 12세기 | 높이 15.1 | 입 지름 4.1 | 굽 지름 5.9

수평으로 벌어지다 꺾여 올라간 광구형 입을 가진 병이다. 몸체는 아래쪽으로 목직하게 무게가 실려 있으며, 목이 가늘고 입도 작아 물건이 담긴 자루 모양이다. 병 속에 술 등을 담았다면 맛이나 향기가 쉽게 흩어지지 않아 보존에 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굽바닥 안쪽에는 철분이 많은 안료로 '금(金)'이라는 글자를 써넣었는데 이러한 표식은 대개 관청의 이름이나 직제, 사람 이름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성(成)'자를 쓴 것들이 있는데, 강진청자박물관 주변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009

청자상감‘천황전배’명과형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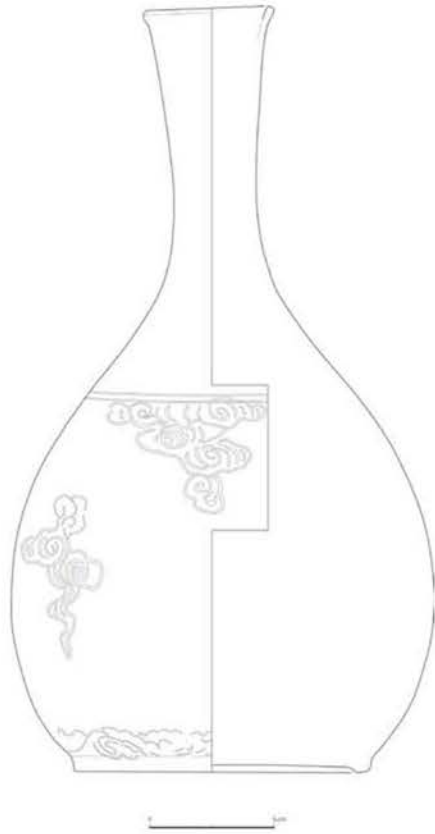
靑瓷象嵌‘天皇前排’銘瓜形瓶

Celadon Melon Shaped Bottle with Inlaid Inscription of 'Cheon-Hwang-Jeon-Bae'

고려 12세기 | 높이 19.3 | 입 지름 8.7 | 굽 지름 6.8

몸통은 참외처럼 세로로 볼록하게 만들고, 그 위에 높고 입이 벌어진 목을 이어붙인 병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6개의 꽃잎으로 된 참외 꽃을 보는 듯하며 병은 참외와 참외 꽃을 합성해 놓은 모습과 유사하다. 긴 목의 중간부에는 가로로 굵은 음각 선을 2줄 돌렸고, 몸체에는 굵은 선을 세로로 4곳에 새겨 참외 몸통의 굴곡을 표현했다. 4개의 면에는 각각 ‘天, 皇, 前, 排’라는 글자를 검은색으로 상감하였다. 이와 비슷한 병은 고려 인종 (1122~1146)의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것 등 여러 점 있으며 강진의 가마터에서도 발견되었다. 🇰🇷





010

청자음각운문병

靑瓷陰刻雲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Cloud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0.4 | 입 지름 5.2 | 굽 지름 11.9

몸통이 가름하고 목이 긴 병이다. 병의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우아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입술은 살짝 벌어졌고 입에서 목으로 서서히 좁아들다가 다시 벌어져 몸통으로 이어지는 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문양은 어깨 부분에 가로로 가늘게 2줄의 선을 긋고 그 아래로는 구불구불한 구름 무늬를 위에서 늘어지는 형상으로 새겼다. 맨 아래에는 섬세한 녁쿨 무늬 띠를 돌려 무늬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태토와 유약은 잘 정선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빙렬(氷裂, 식은테)이 나 있다. 🌈





011

청자병

靑瓷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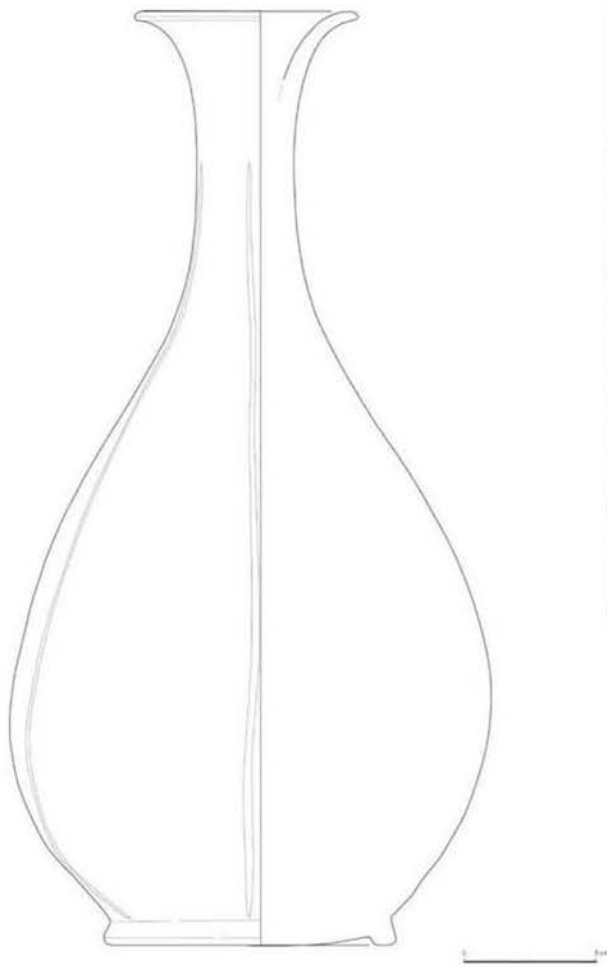
Celadon Bottle

고려 13세기 | 높이 30.6 | 입 지름 6.4 | 굽 지름 10.8

몸통이 가름하고 목이 긴 병이다. 병의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입술은 끝이 살짝 벌어졌고 도톰하게 깎아 마무리하였다. 입에서 목으로 서서히 좁아들다가 다시 벌어져 몸통으로 이어지는데, 그 자연스러운 선의 흐름이 매우 아름답다. 무늬는 어깨 부분에 가로로 가늘게 2줄의 선을 새겼다. 기벽이 얇고 유약도 골고루 입혀져 병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이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 질감은 매우 정교하고 부드러우나 군데군데 굵은 모래와 잡물이 섞여 있으며, 유약은 차분한 비색을 띤다. 🌿







012

청자상감유로수금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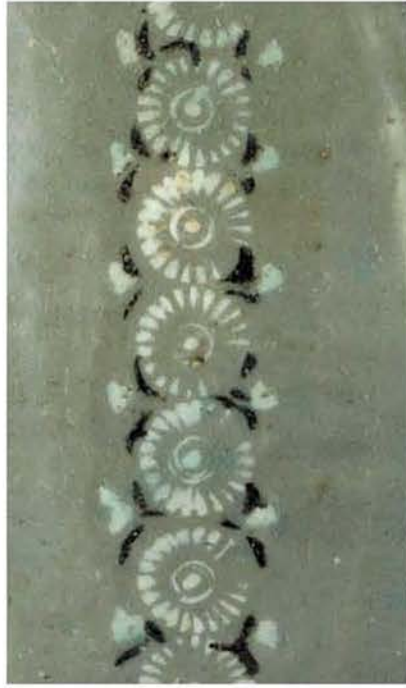
靑瓷象嵌柳蘆水禽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Reed, Lotus, Bird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35.3 | 입 지름 8.4 | 굽 지름 11.0

나팔처럼 벌어진 입과 훌쭉하고 유려한 목,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몸체의 균형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병이다. 몸체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며 서서히 팽창하며 부드럽게 좁아 드는 선이 세련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몸체는 세로로 길게 음각 선을 사용하여 6개의 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면에 서로 다른 무늬를 상감하여 넣었다. 가운데 넓은 면에는 연꽃, 버드나무, 학, 갈대 등을 상감하여 물가에서 유유자적했던 조상들의 멋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하다. 태토가 곱고 유약도 잘 입혀졌으며 잘 녹아서 투명하고 광택이 좋아 최상급이지만, 무늬가 비례를 무시한 채 장식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고려 후기 청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013

청자상감국화문병

靑瓷象嵌菊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34.0 | 입 지름 8.7 | 굽 지름 12.2

입이 나팔처럼 벌어지고 목이 가늘며, 몸체는 아래로 가면서 볼록해져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간 병이다. 병의 목에서부터 굽까지 선을 긋고 파내어 몸체를 6등분하여 참외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각각의 면에 국화꽃 송이 12개를 도장으로 찍어 한 줄씩 세로로 상감해 넣었다. 군자의 맑은 아취와 높은 절개를 지닌 국화의 아름다움이 병의 부드러운 곡선과 잘 어우러져 있다. 굽은 몸체에 비해 넓고 안 바닥은 얇게 깎은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었다. 테토에는 모래가 섞여 있으며 몸체 일부에 유약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





014

청자상감화훼조충문병

靑瓷象嵌花卉鳥蟲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Flower, Reed, Bird,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24.1 | 입 지름 5.4 | 굽 지름 9.0

몸통이 가름하고 목이 긴 형태의 병이다. 입에서 목으로 서서히 좁아들다가 다시 벌어져 몸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있다. 구연 바로 아래에는 끈을 끼워 뚜껑과 연결할 수 있도록 작은 고리를 붙였다. 몸체 전면에 세로로 길쭉한 국화꽃 가지, 갈대와 모란꽃을 서로 마주 보도록 번갈아 2번씩 새겨 넣었다. 갈대 무늬 아래 양쪽에는 오리들을, 모란꽃 무늬 위로는 나비 한 쌍을 장식하여 도안의 구도가 독특하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었으나 일부 산화되어 갈색을 띠며, 기포가 많고 탁하다. 굽 안 바닥 가장자리 4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15

청자상감국화문표형병

靑瓷象嵌菊花文瓢形瓶

Celadon Gourd Shaped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30.5 | 입 지름 2.4 | 굽 지름 10.8

표주박 모양을 본떠 만든 병이다. 물을 따르는 주구 부분에 가늘게 흙 띠를 말아 붙인 고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주구에는 고리 달린 뚜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쪽 탁의 볼록한 부위에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모란꽃 가지 무늬를 3곳에 새겼다. 아래쪽 탁의 몸체에는 2줄의 선을 돌리고 그 아래로 흰색과 검은색으로 상감한 이중 원 속에 국화꽃과 가지를 넣어 배치하고 그 사이 빈 공간의 위아래에도 국화꽃 가지를 넣어 무늬에 균형을 주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어 있고 유약은 잘 녹아서 담녹색을 띠지만 일부가 산화되어 갈색을 띠기도 한다. 굽의 4곳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



016

청자상감당초문소병

靑瓷象嵌唐草文小瓶

Celadon Small Bottle with Inlaid V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10.1 | 입 지름 2.4 | 굽 지름 3.6

굽이 낮고 목이 긴 병이다. 몸체가 작은 것으로 보아 화장용구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늬는 몸체에 상·중·하단으로 나누어 새겼는데, 몸체의 중앙에는 넝쿨을, 상단과 하단에는 연꽃잎 무늬를 새겨 넣었다. 바깥 면은 역상감 기법을 사용하여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조금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의 자태를 형상화했다. 전체적으로 태토와 유약이 잘 정제되어 질감과 색은 좋은 편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산화(酸化)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다. 🌱



017

청자음각연판문표형유병

靑瓷陰刻蓮瓣文瓢形油瓶

Celadon Gourd Shaped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8.4 | 입 지름 1.0 | 굽 지름 3.0

표주박 모양의 작은 기름병이다. 크기로 보아 향유(香油)를 담을 때 쓰던 병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표주박처럼 아래가 동글고 크며, 위쪽에 가름하고 작은 박이 하나 더 붙어 있고 입구가 곧게 올라서 있다. 아래쪽 박 모양의 어깨 부분에 연꽃잎이 겹쳐 핀 모습을 가는 선으로 새겨 넣었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편평하게 다듬고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유약은 비취색을 띠지만 자세히 보면 두텁게 입혀져 작은 기포들이 많다. 이 기포들 때문에 빛이 서로 반사되면서 더 진하고 풍부한 녹색의 느낌이 든다. 🌿



018

청자음각연관문유병

靑瓷陰刻蓮瓣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4.7 | 입 지름 3.1 | 굽 지름 5.5

몸통이 바둑알처럼 납작하고 짧은 목에 각진 광구형의 입을 붙인 작은 기름병이다. 몸체의 어깨 부분에 가로로 2줄의 선을 새겨 2단으로 나누고 윗단에는 연꽃잎 무늬를, 아랫단에는 넝쿨 무늬를 차례로 새겨 넣었다. 가는 음각 선이 세밀하여 연잎의 잎맥과 넝쿨의 장식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무늬 구성과 배치가 아름답다. 유약은 차분한 비색이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입혀졌고 광택도 은은하다. 굽은 낮게 다듬어 깎았는데 굽 안쪽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19

청자음각엽문유병

靑瓷陰刻葉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eaves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4.0 | 입 지름 2.7 | 굽 지름 4.0

납작하고 작게 성형된 기름병이다. 주판알 같은 납작한 몸체에 각진 광구형의 입을 가졌으며 목이 짧다. 몸체의 중간 부분에 가로로 한 줄을 새기고 다시 윗부분을 2단으로 나누어 그 안에 가는 선으로 무늬를 새겼다. 맨 윗단에는 모란잎 같은 이파리 무늬를 대칭되도록 새겼으며, 그 아래쪽에 가는 음각 선으로 작은 구름 무늬를 5곳에 새겨 넣었다. 색조는 차분한 녹색이며 전체적으로 유약이 고르게 입혀져 광택이 은은하다. 유약 속에는 기포가 많아 반투명하면서도 뽀얀 느낌이 든다. 이처럼 몸체가 납작한 기름병은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특히 발달하였다. 🌱




020

청자철화점문유병

靑瓷鐵畫點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Spot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7.7 | 입 지름 3.8 | 굽 지름 4.5

목이 짧고 몸체 중간 부분이 가로로 팽창된 형태의 기름병이다. 병의 입은 굽의 넓이와 그 크기가 비슷하고 각저 꺾인 광구형이며 굽은 낮고 직립해 있다. 몸통 전체에 철화로 점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면 꽃송이를 나타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꽃송이는 8~9개의 점을 동그랗게 돌려 찍고 그 가운데 다시 한 개의 점을 찍어 표현했으나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렇게 점을 찍어 그릇의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철화보다는 백토로 그림을 그리는 퇴화(堆花) 기법에서 자주 보인다. 태토는 가는 모래와 철 반점이 약간 섞여 있고, 유약은 짙은 녹갈색을 띠며 광택이 있다. 



021

청자철화엽문유병

靑瓷鐵畫葉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Leaves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2 | 입 지름 2.4 | 굽 지름 2.9

몸체 중간 부분이 약간 팽창되어 둥그스름한 모양의 기름병이다. 입술은 작지만, 각이 젓 꺾인 구형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된 곳이 있다. 굽은 길에서 보면 안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안쪽으로만 파낸 안(속) 굽 모양이다. 어깨 부분에는 철분이 많은 안료를 사용하여 3개의 이파리 무늬를 그린 후 유약을 입혀 구워냈는데, 이를 철화(鐵畫) 기법이라고 한다. 고려시대 청자의 무늬 장식이 대부분 조각칼을 사용하여 깎고 새긴 것에 비해, 철화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표현한 것이다. 다른 장식이 없이 큰 이파리만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강하고 대범한 느낌이 든다. 🌱



022

청자상감모란문유병

靑瓷象嵌牡丹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6 | 입 지름 3.0 | 굽 지름 5.5

납작하고 작게 성형된 기름병이다. 입은 팽구형인데 매우 작아 상대적으로 몸체가 더욱 팽만하게 부풀어 보인다. 무늬는 어깨에서 몸통까지 모란꽃 가지를 상감 기법으로 3곳에 간격을 맞추어 새겨 넣었다. 모란은 그 자태의 화려함으로 인해 아름다움과 부귀를 상징하여 여인들과 관련된 생활도구에 주로 새긴다. 따라서 이 유병은 여인들의 화장용 기름을 넣었던 병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태토가 곱고 유약도 아름다운 비색으로 구워졌으나 유약이 두텁게 입혀져 모란의 꽃송이 부분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이처럼 몸체가 납작한 기름병은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특히 발달하였다. 🌿



023

청자상감운학문유병

靑瓷象嵌雲鶴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6.0 | 입 지름 2.5 | 굽 지름 5.1

몸체 중간이 완전히 꺾인 마름모꼴이며 작은 입이 달린 기름병이다. 병 전체에 상감 무늬를 새겼는데, 넓고 경사진 윗부분에는 위아래로 가는 선과 구슬 무늬의 띠 장식을 돌린 후 도장으로 찍은 구름 무늬를 전체에 펼쳐 놓았다. 그 사이 4곳에는 날아가는 학을 새겼으며, 마름모꼴 몸체의 아래쪽에도 2줄의 선과 구슬 무늬 띠를 간략하게 상감하였다. 태토가 곱고 유약도 잘 입혀져 비색이 좋은 편이다. 입술이 꺾인 반구형이어서 기름을 따를 때 액체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어 매우 실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굽은 낮지만 넓은 편이며 유약이 덜 녹아 갈색을 띤다. 🌈



024

청자상감운학문유병

靑瓷象嵌雲鶴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6.0 | 입 지름 2.1 | 굽 지름 6.3

몸체가 마름모꼴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상단부와 어깨 면에 2줄의 가는 백상감 줄 무늬를 새기고 그 사이에 운학 무늬를 촘촘하게 새겼다. 기름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뚜껑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다.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3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유약이 덜 녹아 담녹색을 띠며 구연의 일부는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 굽이 낮고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



025
청자삼이호
靑瓷三耳壺

Celadon Three handles Jar

고려 12세기 | 높이 6.7 | 입 지름 5.0 | 굽 지름 5.0

어깨 부위에 3개의 고리를 붙여 만든 작은 항아리이다.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뚜껑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몸체는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활 모양의 곡선을 이루는 형태이며, 굽은 약간 높고 밖으로 벌어져 있다. 고리가 있는 위치에 작은 주구(注口)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무늬가 없어 단정하고 단아한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 빙렬(氷裂, 식은테)이 촘촘히 나 있다. 태토에는 가는 모래와 철 반점이 섞여 있고 유약은 짙은 녹갈색으로 탁하다. (황성은 기증) 🇰🇷





026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고려 12세기 | 높이 35.0 | 입 지름 12.7 | 굽 지름 10.7

고려청자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병으로 크기가 크고 몸체의 균형이 잘 갖춰졌다. 어깨에는 4곳에 고리를 달았는데, 흙 띠를 붙이는 지점에 퇴화 기법으로 흰색 점을 돌려가며 찍어 무늬 없는 몸체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기형은 뚜껑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뚜껑은 전하지 않는다. 크기가 매우 크고 기벽은 얇은 편이며 구연이 넓어 액체보다는 알갱이가 있는 것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부분적으로 유약이 뭉친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용융되어 비색청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027

청자음각사이호

靑瓷陰刻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고려 12세기 | 높이 5.5 | 입 지름 8.3 | 굽 지름 3.5

몸체가 동글납작한 형태의 작은 항아리이다. 뚜껑의 손잡이 부분과 항아리의 어깨 4곳에는 각진 고리를 붙였는데, 장식적인 효과 외에도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뚜껑의 동그스름한 윗면에는 음각으로 2점의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자세하게 새겨 넣었으며, 항아리의 목 부위에도 가는 선으로 2점의 연꽃이 핀 모습을 앞맥까지 자세하게 새겼다. 태토와 유약은 정선되어 매끄럽고 광택도 좋지만 굽는 과정에서 산화되어 녹갈색을 띤다. 굽은 알개 깎았는데 가장자리에 3개의 모래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28

청자상감연당초문소호

靑瓷象嵌蓮唐草文小壺

Celadon Small Jar with Inlaid Lotus V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5.0 | 입 지름 4.3 | 굽 지름 5.0

동글납작한 형태로 뚜껑이 있는 작은 항아리이다. 뚜껑은 가운데가 편평하고 작은 꼭지가 있으며 항아리의 입 안쪽에 얹어질 수 있도록 턱을 맞춰 만들었다. 항아리 몸체는 중간 부분이 가로로 팽창되었다. 뚜껑과 몸체 전면에는 활짝 핀 연꽃이 넝쿨에서 피어올라 굽실거리는 모습을 새겼는데, 위아래로 넝쿨진 모습이 바람에 일렁이는 듯 울동적이다. 상감 무늬는 바탕을 깎아 백토로 메우는 역상감 기법이 사용되었다. 태토와 유약은 매우 고운 편이나, 굽는 과정에서 산화되어 전체적으로 옅은 황갈색을 띤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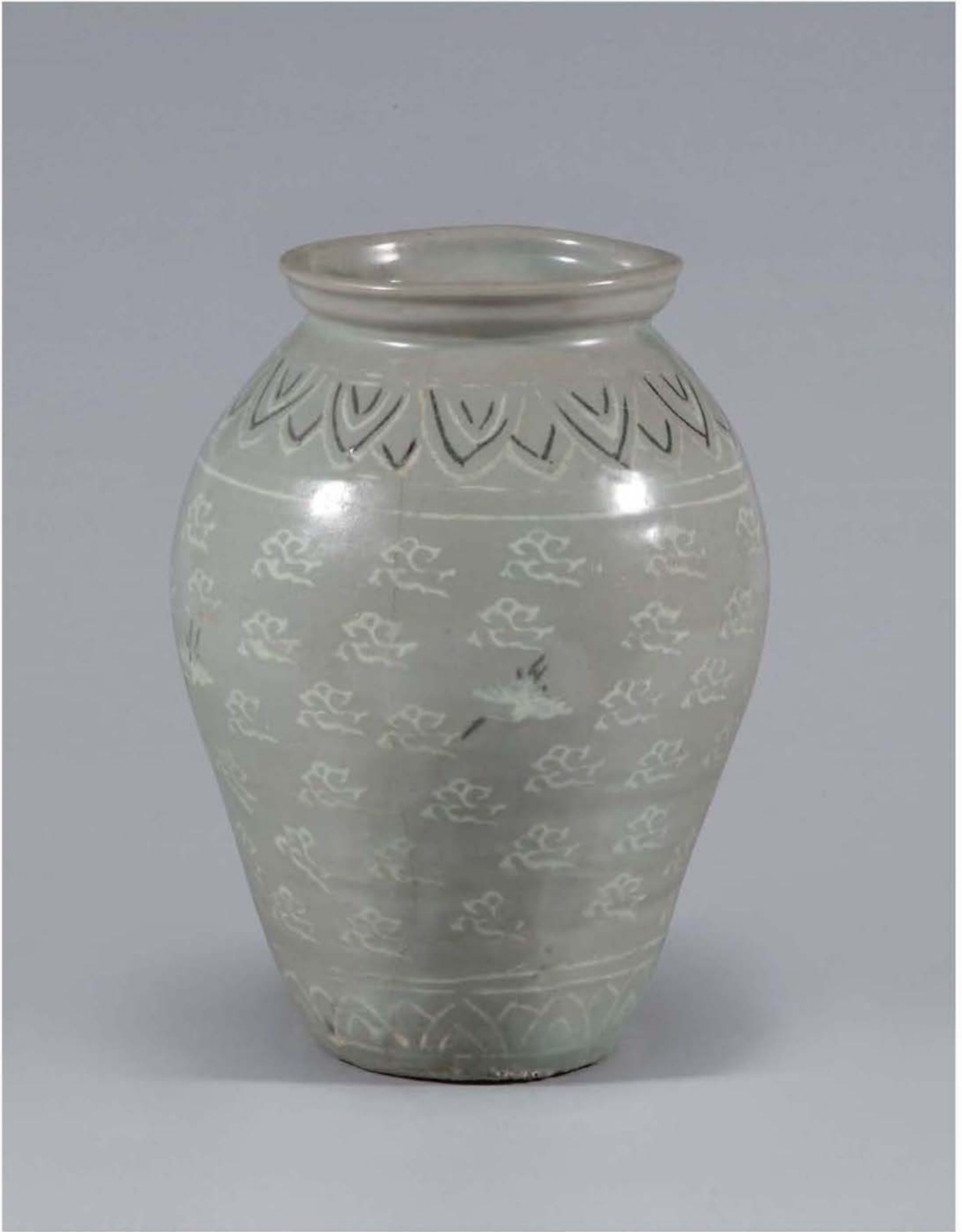
청자상감매로학접문사이호

靑瓷象嵌梅蘆鶴蝶文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with Inlaid Apricot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3.0 | 입 지름 8.3 | 굽 지름 12.0

갈대를 중심 소재로 한 독특한 구성의 사이호이다. 원래 뚜껑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갈대와 매화를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위쪽에는 나비를, 아래쪽에는 학을 표현했다. 특히 갈대의 줄기와 잎은 선명한 흑상감으로 표현되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이호의 형태와 잘 조화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유색은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갈색을 띠고 있으며 유약이 묻쳐 있는 곳도 있지만, 형태와 문양의 완성도, 비색, 그리고 기형의 희소성 측면에서 고급 청자에 속한다. 굽은 안 바닥을 깎아 낸 속 굽으로, 굽 부분의 유약을 담아낸 후 거친 내화토 가루를 받쳐 구웠다. 🌱





030

청자상감운학문호

靑瓷象嵌雲鶴文壺

Celadon Ja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20.9 | 입 지름 10.3 | 굽 지름 8.3

입이 넓고 키가 작은 항아리이다. 목 바로 아래로는 커다란 2겹의 연꽃잎 무늬 모양의 띠를 돌렸는데 흰색과 검은색으로 상감하여 변화를 주었다. 그 아래로는 2줄로 흰색 선을 상감하여 면을 나누었고 굽 바로 위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연잎 무늬 띠를 둘러 통일감을 주었다. 몸체 중간 부분에는 구름과 학을 전면에 널찍하게 새겼다. 구름은 도장으로 찍는 인화(印花) 기법을 사용하여 똑같은 구름 무늬를 같은 간격으로 찍었고, 그 사이에 한 마리 학을 새겨 넣었다. 그러나 구름과 학, 연잎 무늬 등 모든 문양이 거칠고 반복적이며, 솜씨가 많이 뒤떨어져서 14세기 후반 청자 기술이 쇠퇴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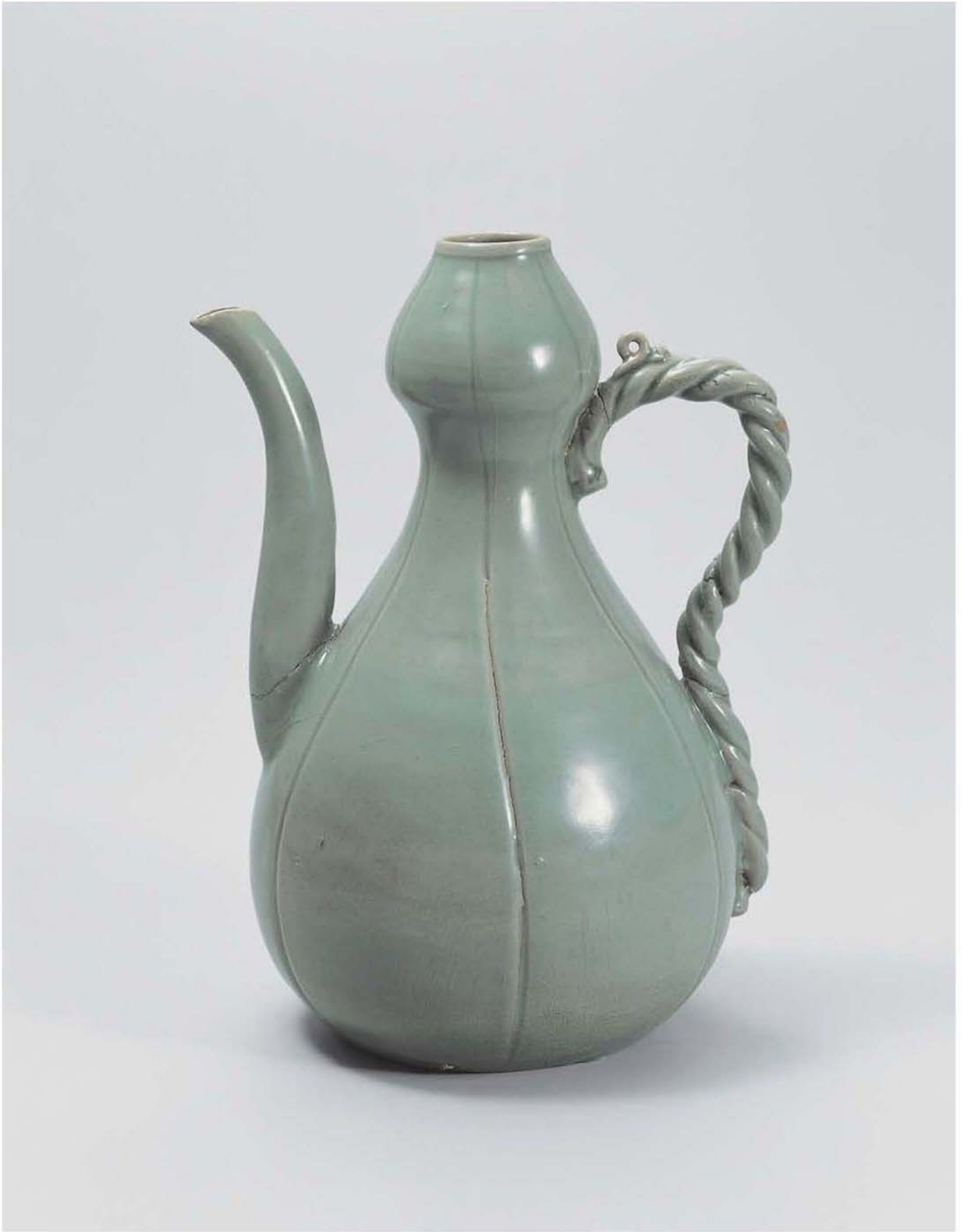
청자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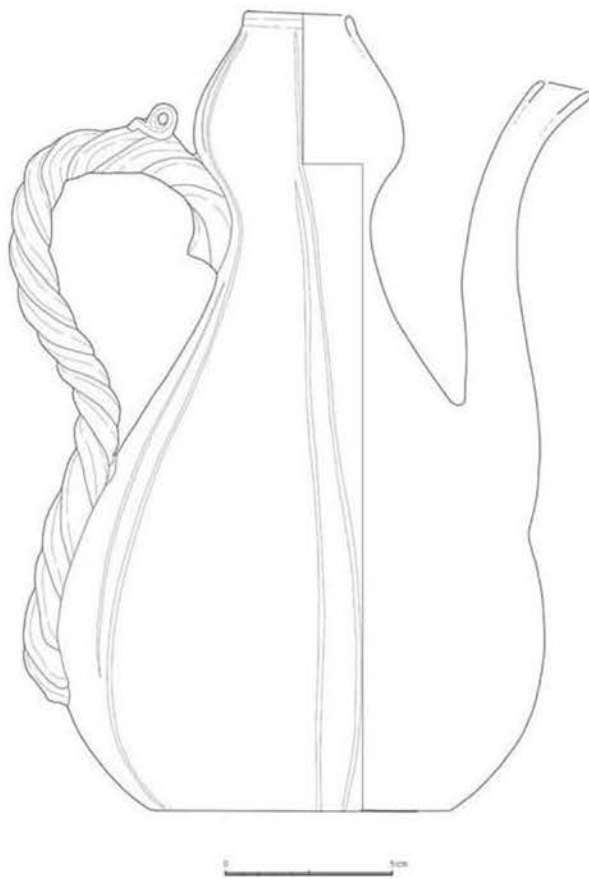
靑瓷注子

Celadon Pitcher

고려 12세기 | 총 높이 23.2 | 주자 입 지름 11.0 | 굽 지름 8.3

원형의 동체와 나팔 모양의 입 부분이 결합한 주자로 무늬는 없다. 손잡이 가운데에 깊은 선을 만들어 잡기 편한 구조이다. 뚜껑에는 보주형 손잡이가 달려 있고, 뚜껑과 손잡이를 끈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다. 뚜껑은 평저형 접시처럼 아랫부분을 편평하게 성형하였으며 중앙 부분은 시유 후 유약을 닦아내었다. 일부는 불완전 번조로 용융 상태가 불량하다. 주자의 굽은 안 바닥을 깎아낸 안(속) 굽으로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강경협 기증) 🇰🇷





032

청자표형주자

靑瓷瓢形注子

Celadon Gourd Shaped Pitcher

고려 12세기 | 높이 23.8 | 입 지름 3.3 | 굽 지름 8.9

위쪽 박과 아래쪽 박으로 연결된 표주박 모양의 몸체에 주구, 수구, 손잡이 등이 잘 갖춰진 주자이다. 본래는 뚜껑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몸체는 같은 간격으로 6곳에 음각 선을 깊게 새겨 면을 나누어 참외 모양을 결합하였다. 주구는 수직으로 올려 끝 부분을 살짝 굴렸으며, 손잡이는 2줄의 흙 띠를 꼬아 붙였다. 손잡이 꼭대기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는 실제 사용의 편의를 고려해 뚜껑에 있었던 꼭지와 연결하여 끈으로 묶어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몸체 각 부분의 비례와 조화가 돋보이며 단아하다. 태토와 유약은 곱고 차분하며 비색이 은은하다. 굽 바닥 6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33

청자음각과당초문주자

靑瓷陰刻瓜唐草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cised Melon, Vine design

고려 12세기 | 총 높이 19.6 | 주자 입 지름 3.3 | 굽 지름 9.1

가름한 몸체에 손잡이와 주구(注口), 수구(水口), 뚜껑을 모두 갖춘 주자이다. 뚜껑과 손잡이 위에는
 녁쿨의 줄기를 본떠 만든 작은 고리를 붙여 미적인 효과와 함께 실제 사용할 때 끈으로 연결하여
 뚜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기능적 효과까지 주고 있다. 참외 같은 가름한 몸체 표면에는 점을
 찍고 녁쿨과 꽃을 세밀하게 음각하여 무늬의 사실감을 더했다. 참외는 열매와 씨앗이 많고 녁쿨이
 줄기차게 이어져 자손의 번성과 끊이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태토와 유약은 잘 정선되어
 전반적으로 비색을 띠며,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34

청자상감연판문주자

靑瓷象嵌蓮瓣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lai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23.5 | 입 지름 3.0 | 굽 지름 9.7

가름한 몸체에 주구와 수구, 그리고 손잡이를 갖춘 주자이다. 수구는 반구형에 가깝지만, 입술 끝이 오므라들었고, 몸체는 반구형 장경병과 유사하다. 무늬는 몸통의 어깨부터 굽까지 전체적으로 면을 넓게 깎아 연꽃잎 무늬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꽃잎의 가장자리 끝 부분은 음각으로 파서 둥글둥글하게 선을 새기고 검은색으로 상감하였다. 굽은 높고 밖으로 벌어졌는데 따로 만들어 붙인 것이다. 안(속) 굽과 손잡이의 위치로 보아 11세기 말부터 12세기 초반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반양각 기법과 함께 상감 기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매우 희귀한 예이다. 🇰🇷





035

청자양각연판문주자

靑瓷陽刻蓮瓣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18.7 | 입 지름 4.8 | 굽 지름 10.7

물을 담는 수구와 물을 따르는 주구, 손잡이를 모두 갖춘 가름한 형태의 주자이다. 본래는 뚜껑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주자의 몸체는 조각칼을 이용해 8부분으로 나누어 연꽃잎 모양의 선을 새기고 그 안쪽을 다시 날찍하게 깎아내는 반 양각 기법으로 연꽃 모양에 입체감을 주었다. 이 같은 연잎 표현은 12세기를 전후해 나타나는데 손잡이와 주구는 물론 굽도 각각 따로 만들어 붙였다. 특히 이 주자처럼 굽을 따로 붙이는 방법은 고려 전기의 병이나 주자 같은 그릇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






036

청자철화선문과형주자

靑瓷鐵畫線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L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2 | 입 지름 3.1 | 굽 지름 3.2

크기가 매우 작아 앙증맞은 느낌이 드는 형태의 과형 주자이다. 손잡이에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자의 뚜껑에도 고리가 있어 손잡이와 끈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외 모양을 지닌 몸체는 8면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면에는 철화안료를 사용한 검은색 세로 선이 거칠게 그려져 있다. 크기는 작지만 물을 따르는 주구와 손잡이를 만들어 붙여 보통의 주자 제작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내부도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물을 담기보다는 향신료나 기름과 같은 특별한 액체를 담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037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

靑瓷象嵌蓮菊牡丹文瓜形注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2호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Chrysanthemum,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총 높이 23.6 | 입 지름 5.0 | 굽 지름 10.0

참외와 같은 몸체에 세로로 골을 낸 후 물을 따르는 주구와 물을 담는 수구, 손잡이를 갖춘 주자이다. 크기와 유약의 투명도, 전체적인 조형성과 정교한 상감 기법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몸체의 굴곡진 부분은 12개의 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면을 따라 연꽃 가지, 국화꽃 가지, 모란꽃 가지 등을 세로로 길게 상감하였다. 주구는 연잎을 말아 붙인 것처럼 조각하고 여러 개의 가로 선을 새겨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으며, 손잡이에는 세로로 선을 그어 굴곡지게 만들어 붙였다. 태토와 유약은 정제되어 곱지만, 바닥 면에 부분적으로 유약이 산화되어 녹갈색을 띠기도 한다.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6곳에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38

청자상감연화절지문과형주자

靑瓷象嵌蓮花折枝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design

고려 13세기 | 총 높이 18.4 | 주자 입 지름 3.9 | 굽 지름 9.9

참외 모양에 주구와 수구, 손잡이, 뚜껑 등을 모두 갖춘 주자이다. 몸통은 물레로 만든 후 세로로 골이 지도록 눌러 8개의 면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면에는 연꽃 가지 무늬를 좁고 긴 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형시켜 세로로 길게 상감하였다. 주자의 입구 둘레와 바닥 부분에는 연꽃잎 무늬를 세밀하게 새겨 상감하였으며, 물을 따르는 주구는 가는 선으로 음각하였다. 뚜껑의 꼭지와 손잡이 윗부분에는 식물 줄기 모양으로 구부러 붙인 장식을 달아 끈으로 연결하여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태토가 곱고 유약도 비색으로 잘 구워졌으나 전체적으로 빙렬(氷裂, 식은테)이 많다.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39

청자퇴화연국문과형주자

靑瓷堆花蓮菊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19.8 | 입 지름 3.5 | 굽 지름 10.0

연꽃과 국화를 소재로 한 참외 모양의 주자이다. 무늬는 상감한 것이 아니라 흰색 흙과 검은색 흙을 붓에 묻혀 그리는 퇴화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고려청자 중에 퇴화 기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유물로서 발견되는 예는 흔하지 않다. 연꽃은 꽃봉오리와 연잎으로, 국화는 꽃송이를 2단으로 그렸는데 선이 경쾌하고 빠르게 그린 듯 울동적이다. 과일 형태의 몸체에 그려진 무늬는 연꽃과 국화꽃이 있으나 8개 면 중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면에만 연꽃 가지와 앞·뒷면에 하나씩 대칭이 되도록 그려 넣었다. 🌸



040

청자잔탁

靑瓷盞托

Celadon Cup Stand

고려 12세기 전반 | 높이 3.9 | 입 지름 5.4 | 굽 지름 3.9

잔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이다. 잔을 올려놓는 잔좌(盞座) 부분이 나지막한 잔을 잘라 붙인 것처럼 생겼으며, 그 안에서 굽바닥까지 원통형으로 완전히 뚫려 있는 형태이다. 함께 사용했던 잔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마상배(馬上杯)'와 같이 팽이처럼 굽이 뾰족한 잔을 얹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잔좌 옆으로는 넓고 편평하게 덧댄 부분인 전을 만들어 붙였는데 가장자리가 살짝 올라서 있다. 무늬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조형이 단순하면서도 우아하다. 흙이 곱고 유약 면이 매끄러우며 차분한 비색을 띤다. ■



041
청자상감국화문잔탁

靑瓷象嵌菊花文盞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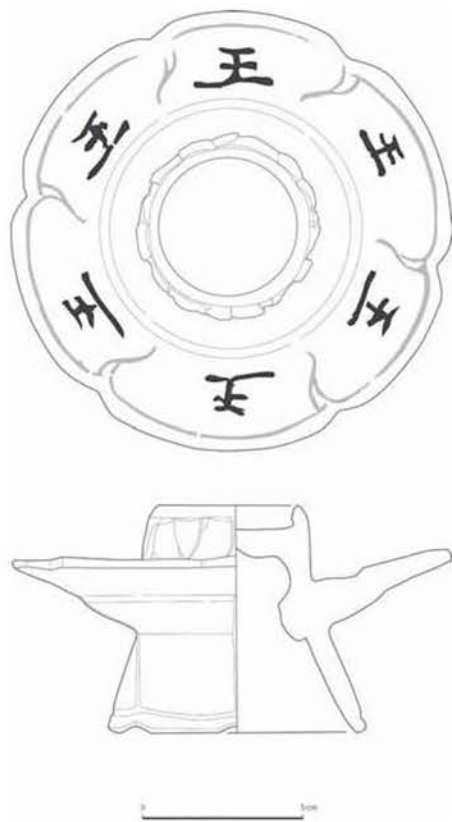
Celadon Cup Stand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2 | 입 지름 12.6 | 굽 지름 5.8

잔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이다. 잔을 올려놓는 잔좌(盞座) 부분이 나지막한 잔을 잘라붙인 것처럼 생겼으며, 그 안쪽에서 굽바닥까지 원통형으로 완전히 뚫려 있는 형태이다. 함께 사용했던 잔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마상배(馬上杯)'와 같이 팽이처럼 굽이 뾰족한 잔을 얹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잔좌 옆으로는 넓고 편평하게 덧댄 부분인 전을 만들어 붙였는데 가장자리가 살짝 올라서 있다. 잔좌의 입술과 가장자리, 굽의 아래쪽에 흰색으로 번개 무늬를 상감하였다. 전의 윗면에는 국화꽃 가지 무늬를 4곳에 새겼는데, 꽃봉오리와 가지 등을 세세하게 표현하였다. 흙이 곱고 유약 면이 매끄러우며 차분한 비색을 띤다. 🌸







042

청자상감'왕'명 잔탁

靑瓷象嵌'王'銘盞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4호

Celadon Cup Stand with Inlaid Inscription of 'Wang'(King)

고려 13세기 | 높이 7.1 | 입 지름 13.8 | 굽 지름 7.7

수평으로 붙인 넓은 전 (가장자리에 덧댄 부분)과 높은 굽의 가장자리를 6개의 꽃잎 모양으로 도려낸 잔탁(盞托)이다. 본래는 잔과 잔 받침을 한 벌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받침만 남아 있다. 잔 윗면에 있는 꽃잎 6장은 백상감 선으로 구획한 다음 꽃잎마다 '王'자를 흑상감 하였다. 중앙에 솟아 있는 잔좌(盞座)에는 연꽃잎 모양을 이중으로 조각하였다. 굽은 높고 밖으로 벌어졌으며, 굽과 잔의 하부는 유약이 용융되지 않아 탁한 갈색을 띤다. 잔을 받치는 부분과 전, 굽 등은 모두 따로 만든 후 붙였다. 강진청자박물관 부근(사당리 41호 가마터)에서 수습하여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김재보 기증) 🌈





043

청자음각연화절지문퇴주기

靑瓷陰刻蓮花折枝文退酒器

Celadon Vessel for Emptied Wine with Incised Lotus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9.9 | 입 지름 19.7 | 굽 지름 5.8

작고 납작한 항아리에 넓게 벌어진 대접을 올려붙여 이어 만든 퇴주기(退酒器)이다. 구연에 해당하는 대접이 아래 항아리에 비해 크다. 넓은 입의 가장자리에는 음각 선을 한 줄 돌렸고, 넓고 둥그스름한 기벽에는 연꽃 가지 무늬가 같은 간격으로 3곳에 음각되어 있다. 굽 안 바닥 중심에는 'ㅇ'의 표식이 있는데 도장 같은 도구를 이용해 찍은 것으로, 강진 사당리 23호, 27호 가마터와 상류층 거주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왕실 등 국가의 공납과 연관된 특정한 수요를 위한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44

청자화형발

靑瓷花形鉢

Celadon Flower Shaped Bowl

고려 11세기 | 높이 8.3 | 입 지름 17.2 | 굽 지름 6.3

안쪽이 좁고 입이 벌어진 형태의 발(鉢)이다. 이 발은 바깥 면에 도구를 이용하여 세로로 길게 누르듯이 훑어내어 전체적으로 7개의 꽃잎을 가진 꽃 모양을 띤다. 이러한 기법은 고려시대 전기(10~11세기)에 청자나 백자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릇의 태토에는 작은 모래 알갱이 등이 섞여 있어 매끄럽지 못하고 유약도 얇게 입혀져 아직 비색청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이전, 초기 청자의 기술을 보여준다. 그릇의 안 바닥에는 열은 흰색의 흙 자국이 5곳에 남아 있는데, 이런 흔적은 굽의 바닥 면에도 남아 있어 다른 그릇과 함께 포개 구웠음을 알 수 있다. (윤중채 기증) 🇰🇷





045

청자양각연판문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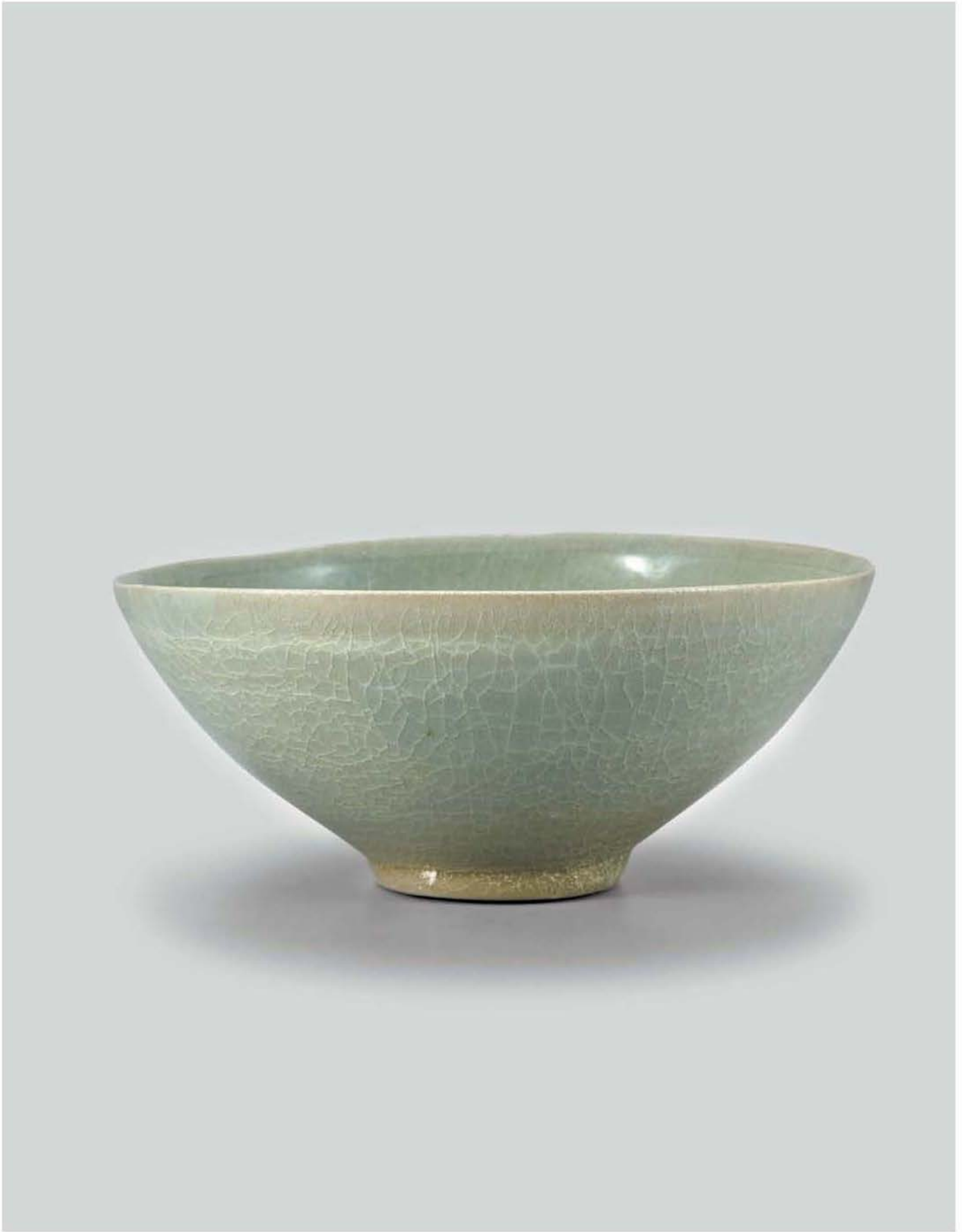
靑瓷陽刻蓮瓣文鉢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7.8 | 입 지름 17.0 | 굽 지름 7.0

고려청자 전성시대에 강진 가마터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로 아래가 좁고 차츰 벌어져 올라간 모양의 발이다. 바깥 면 전체에 연꽃잎을 2단으로 새기고 다시 끝단이 이중으로 겹쳐지는 형태의 깎아낸 무늬가 있다. 꽃잎은 가름하고 끝이 뾰족한 형태인데, 잎의 가운데를 마치 실제 꽃잎처럼 도드라지게 깎고 잎 가장자리까지 하나하나 얇게 조각하여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커다란 연꽃 봉오리가 막 벌어져 피어나는 모습이 떠오른다. 굽이 높으며 안쪽에는 무늬가 없고 바닥을 다듬을 때 만들어진 작고 편평한 원이 있다. 🌈







046

청자음각앵무문발

靑瓷陰刻鸚鵡文鉢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3 | 입 지름 17.5 | 굽 지름 6.5

옆선이 동그스름하게 벌어져 입술이 곧게 올라선 발이다. 안 바닥에는 굽 지름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입술 안쪽으로는 가는 음각 선을 한 줄 돌리고 그 아래로는 3마리의 앵무새가 서로 꼬리를 물고 한쪽 방향으로 나는 형상이 새겨져 있다. 앵무새는 뾰족한 부리와 날개, 꼬리까지 섬세하게 새겼는데 앵무새와 앵무새 사이에는 구름을 넣어 무늬의 단순함에 변화를 주었다. 안 바닥에도 가는 음각으로 연꽃 2송이가 꽃받침을 맞댄 구도로 새겨져 있다. 태토와 유약은 매우 잘 정선되었으나 빙렬(氷裂, 식은테)이 많고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갈색을 띠는 곳이 있다. 🌈





047

청자상감운학문발

靑瓷象嵌雲鶴文鉢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8.1 | 입 지름 17.9 | 굽 지름 6.3

구연이 살짝 밖으로 벌어졌고 깊이감이 있는 오목한 형태의 발이다. 안팎으로 상감 문양이 가득 새겨져 있는데, 안쪽 가장자리에는 만(卍)자 무늬 띠를 두르고 그 아래 구름 사이로 날고 있는 학을 새겼다. 4마리의 학은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날고 있다. 바깥에는 위에서 아래로 만(卍)자 무늬, 구름과 학 무늬를 가로로 차례차례 새겨 넣었는데, 그 사이 중간 부분에는 2점의 동근 테두리로 두른 국화 무늬를 4곳에 넣고 나머지 여백은 넝쿨 무늬로 채워 화려함을 더했다. 굽이 좁고 태토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표면이 매우 거칠다. 🇰🇷





048

청자개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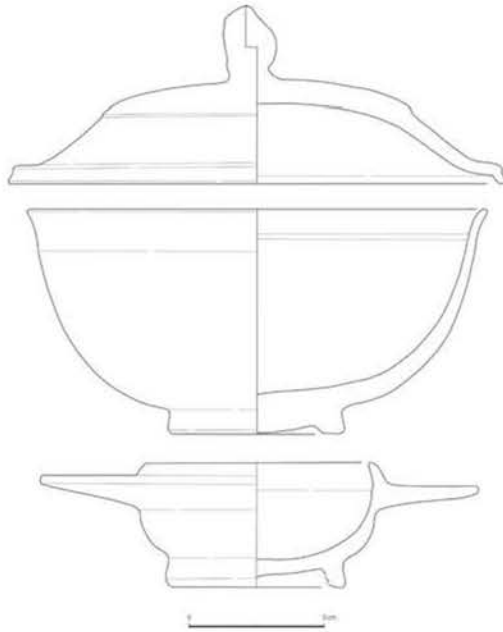
靑瓷蓋盒

Celadon Bowl and lid

고려 11세기 | 총 높이 14.0 | 입 지름 17.5 | 굽 지름 6.0

접시 모양의 뚜껑과 동그스름한 발(鉢)이 한 벌로 이루어진 합이다. 접시형태의 뚜껑, 90°로 꺾인 입술 가장자리, 높고 밖으로 벌어진 굽 등에서 청동으로 만든 합과 매우 유사한 고려초기의 합이다. 접시 모양 뚜껑의 맨 윗부분에 굽처럼 생긴 손잡이가 있고, 안 바닥에 동근 원각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백색 내화토 비짐 흔적이 4곳에 남아 있다. 발 역시 안쪽 면 구연 아래에 음각 선이 한 줄 돌려져 있고 바닥 가운데는 포개굽기 위한 백색 내화토 비짐 흔적이 5곳에 남아 있다. 태토가 거칠고 색이 어두우며 유약이 얇아 굽는 동안 산화되어 녹갈색을 띤다. 🇰🇷





049

청자상감운학국화문개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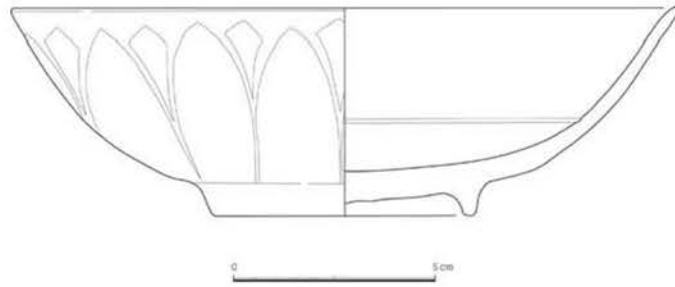
靑瓷象嵌雲鶴菊花文蓋盒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93호

Celadon Bowl, Lid and stand with Inlaid Cloud, Crane,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총 높이 18.0 | 뚜껑 입 지름 18.4 | 발 입 지름 17.4 | 받침 입 지름 16.1 | 발 굽 지름 6.3 | 받침 굽 지름 6.5

커다란 발(鉢)에 뚜껑을 얹고 받침을 갖춘 한 벌의 합이다. 이 합은 크기와 형태, 구성으로 보아 특수한 용도를 위한 것이라 추정된다. 뚜껑에는 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손잡이 겸 꼭지를 붙였고 꼭지 둘레로 연꽃잎, 국화꽃, 구름과 학 무늬 띠를 차례로 돌렸다. 발 역시 안쪽에는 국화꽃 한 송이를 가운데 두고 그 둘레로 구슬, 여의두, 구름과 학 무늬 등을 차례로 돌렸고, 바깥쪽 입술 부위에 번개 무늬 띠를 돌리고 그 아래로 구름 무늬, 동근 원 무늬 속에 넣은 모란 무늬, 연꽃잎 무늬를 돌려 장식하였다. 받침대는 탁잔과 비슷한 모양으로 윗면에는 구름과 학 무늬와 가장자리에 만(卍)자 무늬를, 아랫면에는 넝쿨 무늬를 바탕에 넣고 4곳에 국화 무늬를 넣었다. 굽 전체에 굵은 모래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50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瓷陽刻蓮瓣文大椀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5.2 | 입 지름 16.6 | 굽 지름 6.6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균형과 비례, 조각과 표면 질감 등에서 거의 완벽한 고려청자의 기술을 보여주는 대접이다. 비교적 높이가 낮고 옆선이 완만하게 벌어져 거의 접시에 가까운 모양이다. 대접 안쪽은 완만한 곡선이며 무늬가 없다. 바깥쪽에는 꽃잎의 중간부와 가장자리를 입체적으로 깎아 돌출시켜 14개의 연꽃잎을 섬세하게 이중으로 조각하였으며, 그 때문에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 송이의 만개한 연꽃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표면 질감이 매끄럽고 광택도 적당하여 맑고 투명한 비색을 보여준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51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椗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5.3 | 입 지름 10.7 | 굽 지름 6.5

입이 넓고 키가 낮은 대접으로 기벽이 얇고 형태가 단정하며 안정감이 있다. 대접의 바깥쪽에는 무늬가 없지만, 안쪽 바닥에는 4마리의 앵무새를 새겨 넣었다. 앵무새는 머리에 깃털이 없고 꼬리가 길며 날개를 펼친 모습이며 그 위쪽에 8개의 구름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여 대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름이 있는 하늘에 앵무새가 날고 있는 형상이다. 특히 굽은 U자형으로 깎은 후 모서리를 다듬어 매끄럽게 만들고 굽바닥까지 유약을 입혔으며 안 바닥에 구석을 받쳐 구웠다. 유약은 비색으로 차분하며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어 전성기 고급 청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





052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椗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5.7 | 입 지름 17.7 | 굽 지름 7.0

입이 넓고 굽이 낮은 형태의 대접이다. 대접 바닥에 2마리의 앵무새를 서로 꼬리를 물고 마주 보게 새겨 넣었고 안쪽 옆면에는 간략한 구름을 6곳에 간격을 맞추어 새겼으나 무늬는 아주 흐릿하다. 굽은 U자형으로 깎은 후 모서리를 다듬어 매끄럽게 만들고 굽바닥까지 유약을 입혔다. 태토와 유약은 비교적 곱지만, 기벽이 두껍고 유약도 기포가 많다. 굽 안 바닥에 강진 사당리 23호와 27호가 마터에서만 확인되는 'ㅇ'표기가 도장 무늬로 찍혀 있는데 왕실 등 국가의 공납과 연관된 특정한 수요를 위한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53

청자화형대접

靑瓷花形大椀

Celadon Flower Shaped Bowl

고려 12세기 | 높이 6.1 | 입 지름 18.3 | 굽 지름 5.0

입이 넓고 크며 입술 가장자리 6곳을 살짝 도려내 꽃 모양으로 만든 대접이다. 안 바닥에 굽 지름과 거의 같은 크기의 원각(圓刻)이 있고 옆선은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구연 바로 아래에 한 줄의 음각 선을 돌렸다. 안팎으로 무늬는 없고 소박하며 단아한 느낌이다. 질감이 매끄럽고 유색도 차분하며 두께는 얇다. 그릇 안쪽에는 다른 그릇을 포갠 흔적이 없어 맨 위쪽에 놓고 구웠거나, 아니면 갑발에 넣고 단독으로 구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굽바닥 4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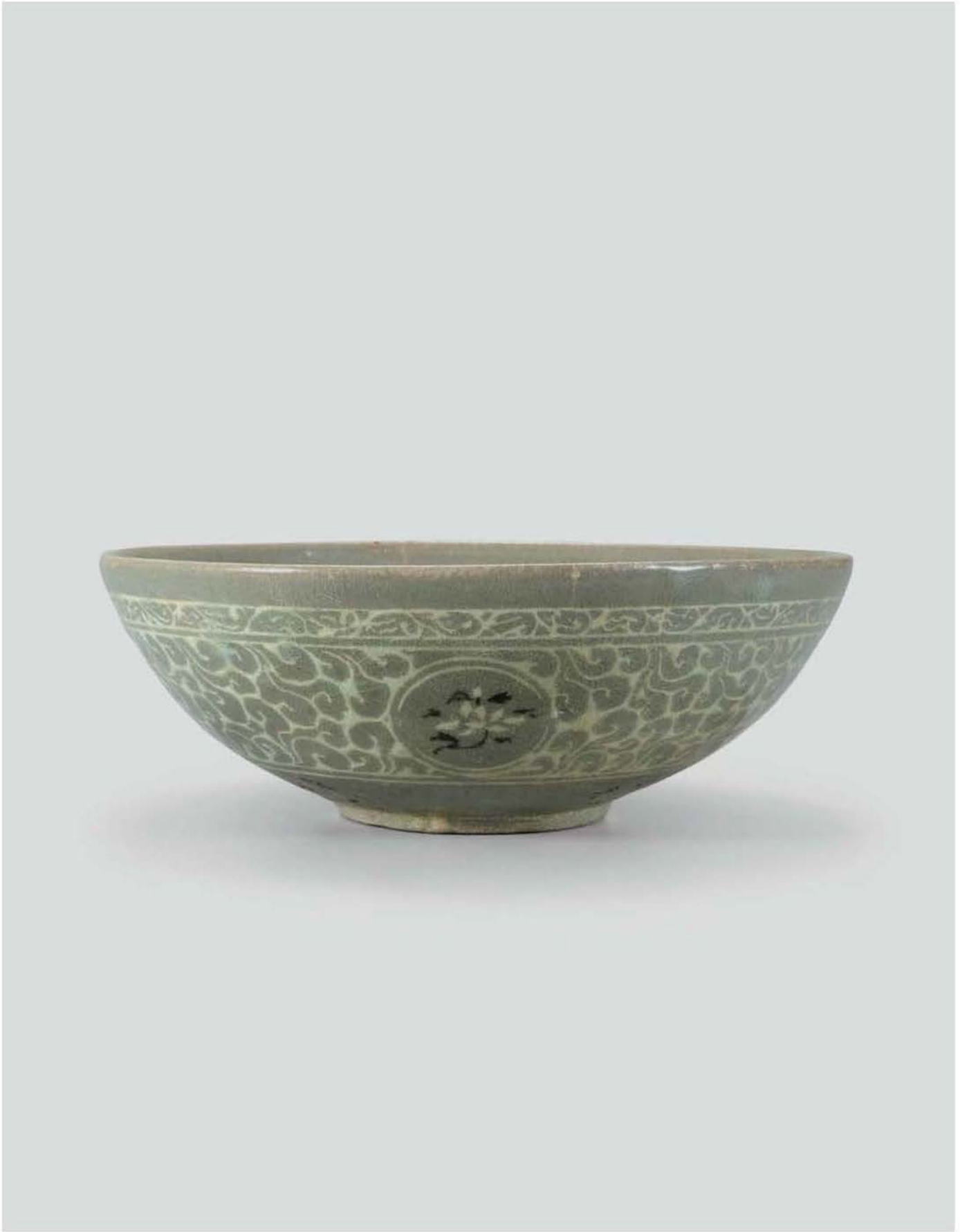
청자상감모란문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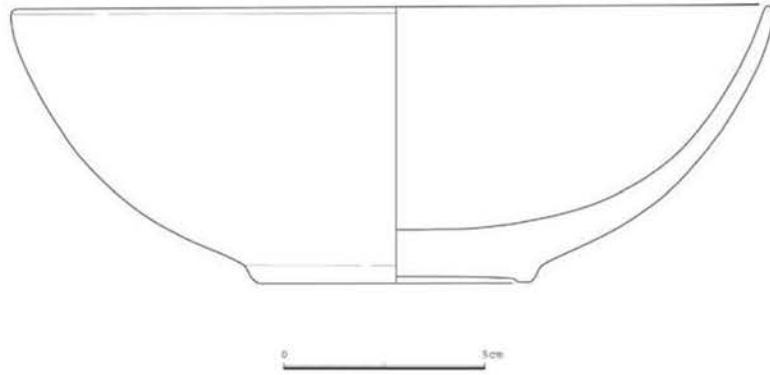
靑瓷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5.6 | 입 지름 19.2 | 굽 지름 6.1

안쪽 면이 완만하고 둥글며 나지막한 대접이다. 무늬는 모두 흰색으로 상감 되어 있는데, 안 바닥에는 십자로 뻗은 모란잎을 넣었고 옆면에는 모란꽃 가지 무늬를 섬세하게 새겨 넣었다. 입술 아래에는 가는 넝쿨 무늬 띠를 상감하였으며, 바깥 면에는 안쪽에 있는 것과 같은 모란꽃 가지 무늬를 4곳에 넣었다. 유약은 잘 녹아 맑은 광택이 나지만, 산화되어 일부에서 갈색을 띠는 곳도 있다. 굽 안 바닥 중심에는 ‘ㅇ’의 표식이 있는데 도장 같은 도구를 이용해 찍은 것으로, 강진 사당리 23호, 27호 가마터와 상류층 거주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왕실 등 국가의 공납과 연관된 특정한 수요를 위한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55

청자상감여지문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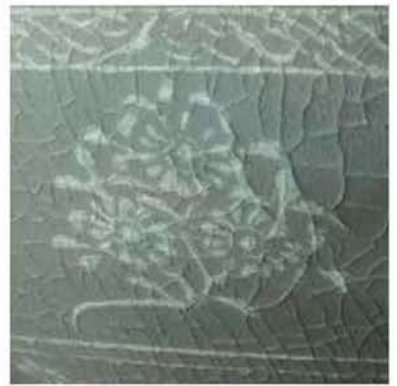
靑瓷象嵌荔枝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6.9 | 입 지름 18.9 | 굽 지름 7.2

높이가 낮고 입이 크며 몸체가 동글게 벌어져 공을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한 모양의 대접이다. 그릇의 안 바닥 중심과 옆면 5곳에 여지(荔枝)나무 열매를 백상감 기법으로 새겼다. 여지는 중국 남방에서 나는 식물로 고려와 일본은 물론 서역(西域)이나 아프리카까지 전해졌으며, 도자기를 비롯한 공예품에 무늬로 애용되었다. 그릇의 바깥 면에는 몸체 중간에 넝쿨 무늬를 역상감 기법으로 넓게 두르고 그 사이사이 4곳에 모란꽃 줄기를 상감해 넣었고 그 아래쪽 4곳에도 국화를 새겨 넣었다. 전체적으로 태토와 유약이 매우 정선되어 있으며, 유약도 굽 안 바닥까지 비색(翡色)을 띠고 있다.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56

청자상감여지문대접

靑瓷象嵌荔枝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8.8 | 입 지름 20.3 | 굽 지름 6.3

바닥부터 입까지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대접이다. 안팎에 모두 흰색으로 무늬를 상감하였다. 입술 안쪽 바로 아래에는 한 줄의 좁은 넝쿨 무늬 띠를 돌렸고, 안 바닥의 작은 원각(圓刻) 중심과 안쪽 면 전체에는 여지(荔枝)나무 줄기를 흰색으로 상감하였다. 바깥 면에는 입술 바로 아래 8곳에 구름 무늬를 같은 간격으로 두르고, 그 아래 역시 한 줄의 좁은 넝쿨 무늬 띠를 돌렸다. 그 아래 넓은 면에는 국화가 3송이씩 붙은 꽃가지 무늬를 6곳에 배치했으며 다시 아래에 2줄로 선을 돌려 경계를 만든 후, 한 송이 국화꽃 가지 무늬를 5곳에 상감하여 마무리했다. 태토가 곱고 회색이 감도는 녹색을 띠어 품질이 좋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빙렬(氷裂, 식은테)이 가늘게 나 있다. 🌈





057

청자상감화엽문화형대접

靑瓷象嵌花葉文花形大椗

Celadon Flower Shaped Bowl with Inlaid Petal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6.3 | 입 지름 18.6 | 굽 지름 6.5

안쪽 면에 턱이 없이 오목한 곡면의 형태로 넓게 벌어진 대접이다. 입술 가장자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6곳에 홈을 팠으며, 그 위치에 맞추어 안쪽을 흰색과 검은색 선으로 6개의 잎을 가진 꽃모양을 상감하였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널찍한 꽃잎을 가진 꽃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바깥쪽 면에도 안쪽과 같은 위치에 같은 방법으로 6개의 꽃잎을 표현했는데, 각각의 잎 안쪽에는 국화꽃 가지 무늬를 하나씩 새겨 넣었다. 안 바닥과 입술 언저리, 굽바닥 면 등에는 유약이 많이 닳아 있어 실제로 많이 사용했던 흔적이 보인다. 🌈





058

청자상감'경오'명유로수금문대접

靑瓷象嵌'庚午'銘柳蘆水禽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Gyeong-o' and Willow, Reed, Bird design

고려 1330년 | 높이 6.4 | 입 지름 19.3 | 굽 지름 6.9

안 바닥에 '경오(庚午)'가 새겨진 대접이다. 고려후기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간지(干支)로, 경오년은 1330년으로 추정되며, 국가에 공물로 바치는 도자기의 주문과 납품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새기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접 안쪽에 새겨진 버드나무와 갈대, 부들, 연꽃, 오리, 원앙 등 물가의 풍경은 선조들의 여유로운 풍류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릇 안의 가운데 바닥에 '경오(庚午)'라는 글자는 도장으로 찍은 후 흑상감 하였다. 바깥 면에도 국화 무늬를 4곳에 넣은 후 여백을 넝쿨 무늬로 채웠다. 그릇의 질감은 약간 거칠며 유약은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거나 뭉쳐 있기도 하다. 🌈





059

청자상감‘임신’명운학문대접

靑瓷象嵌‘壬申’銘雲鶴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Im-Sin' and Cloud, Crane design

고려 1332년 | 높이 5.7 | 입 지름 16.7 | 굽 지름 6.5

비교적 낮고 안 바닥에 턱이 없이 완만한 형태의 대접이다. 고려 후기의 연대를 나타내는 간지(干支)로, ‘임신(壬申)’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임신년은 1332년으로 추정되며, 국가에 공물로 바치는 도자기의 주문과 납품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새기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릇 안쪽에는 구름사이로 학이 날고 있는 장면이 펼쳐져 있는데, 4마리의 학은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며 구름도 마치 꽃송이처럼 변형시켜 반복되었다. 바깥 면에도 위아래 2줄의 선으로 면을 나누고, 중심에는 국화를 4곳에 새겨 넣고 나머지 여백을 넝쿨 무늬로 채워 조화롭게 배치했다. 그릇 안쪽은 약간 산화되어 옅은 황색 기운이 돈다. 🌈





060

청자상감화훼조충문대접

靑瓷象嵌花卉鳥蟲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Flower, Bird,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8.3 | 입 지름 20.1 | 굽 지름 7.2

옆선이 벌어지다가 입술에서 살짝 오므라든 형태의 대접이다. 대접의 안쪽에는 대칭으로 2개의 꽃 무더기와 잎줄기를 상감하고, 그 문양 사이에는 각각 4마리의 새와 나비를 동일한 간격으로 새겨 넣었다. 바깥에는 위에는 가는 풀 무늬 띠를, 아래에는 연잎 무늬 띠를 돌렸고, 중간 넓은 면에는 4곳에 2줄의 원형 틀 속에 국화를 상감하고 남은 여백은 넝쿨 무늬로 메웠다. 이 굽바닥 가운데에 '木'자를 장식적으로 변형시킨 부호가 도장 찍는 기법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 부호는 청자의 주문과 납품 등 유통과정과 연관이 있는 표식으로 지금까지 강진 용운리 47호, 사당리 38호, 41호 등의 가마터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 상감 청자에 많다. 🇰🇷





061

청자상감‘왕’명대접

靑瓷象嵌‘王’銘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Wang'(King)

고려 14세기 | 높이 7.0 | 입 지름 15.6 | 굽 지름 5.6

몸체가 꺾임 없이 둥그스름하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대접이다. 그릇 안쪽에는 아무런 꺾임이 없고 무늬도 없어 그 느낌이 투박하다. 그릇 바깥 면 4곳에 대칭으로 ‘王’이라는 글자를 검은색으로 상감했는데, 글자 둘레에는 2줄로 된 흰색의 원형 테두리를 돌렸다. 글자로 보면 왕실과 연관된 그릇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14세기 이후 고려 청자 쇠퇴 시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성기 청자들에 비하면 그릇이 두껍고 무겁다. 굽은 약간 경사지게 깎고 내부도 다듬었지만 정교하지 못하고,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





062

청자양각연판문완

靑瓷陽刻蓮瓣文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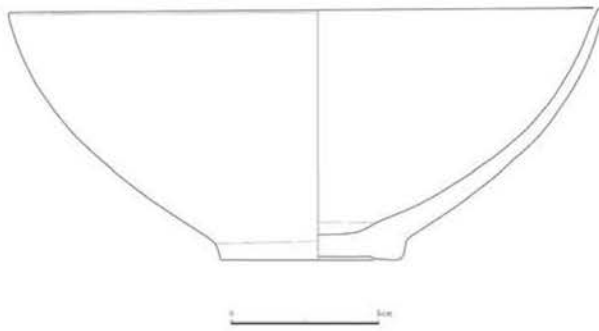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1세기 | 높이 6.0 | 입 지름 15.6 | 굽 지름 6.0

굽이 높고 동근 몸체에 연꽃잎 무늬를 새긴 완이다. 안 바닥 가운데 지름이 좁은 음각의 원을 넣었는데, 바닥을 납작하게 다듬으려다 생긴 무늬인 듯하다. 동근 몸의 바깥 면에도 연꽃잎 무늬를 새겼으며 가는 음각 선으로 꽃잎 테두리를 새기고 그 내부를 면으로 넓게 깎아 꽃잎에 입체감을 주었다. 이렇게 면으로 넓게 깎아 연꽃잎을 표현하는 방법은 고려시대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에 해당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굽은 밖으로 살짝 벌어졌는데 깊고 또렷하게 깎아 모서리를 다듬었던 고려중기 이후의 것과 비교된다. 🌈







063

청자완

靑瓷碗

Celadon Bowl

고려 11세기 | 높이 6.3 | 입 지름 16.0 | 굽 지름 6.1

차를 마시는 다완(茶碗)으로 무늬가 없으며 측면 선이 밑 부분에서 입술까지 사선을 이룬다. 굽 높이가 낮고 바닥은 넓고 편평한데, 맑은 날 하늘에 해무리가 진 것과 비슷하다 하여 '해무리 굽완'이라고도 부른다. 중국 당나라시대 청자와 백자에서 비슷한 굽과 형태를 보인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종은 초기 청자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릇 안쪽에는 작은 원각(圓刻)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초기 단계를 벗어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굽 지름과 굽 너비는 넓고, 그릇 크기도 비교적 큰 편이다. 태토와 유약이 매우 정선되었으며 유약의 용융상태도 일정하며,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5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64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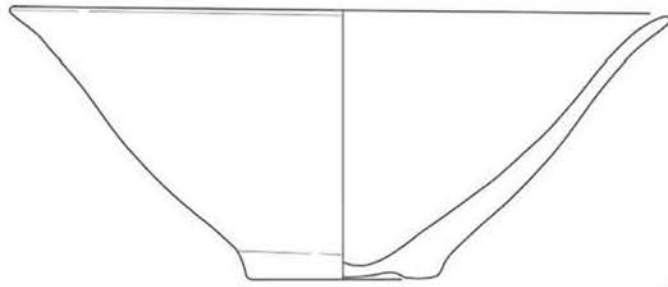
靑瓷壓出陽刻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Pressed and Raise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2 | 입 지름 16.7 | 굽 지름 3.6

굽이 좁고 직선으로 곧게 펼쳐지듯 벌어진 완이다. 안쪽에 전체적으로 구름과 학을 새겨 넣었는데, 그 위로는 넝쿨 무늬 띠를 새겼다. 구름 무늬는 넝쿨처럼 구불구불하면서도 이어져 그릇 안쪽을 가득 채웠으며, 그 사이에 4마리 학을 위아래로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어가며 섬세하게 새겼다. 무늬는 압출 양각 기법으로, 그릇이 너무 마른 상태에서 틀에 넣고 눌렀는지 무늬의 입체감이 다소 떨어진다. 바깥 면에는 무늬가 없이 간결하지만, 유약이 산화되어 부분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 그릇 안쪽에는 작은 원각(圓刻)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초기 단계를 벗어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065

청자압출양각국화문완

靑瓷壓出陽刻菊花文碗

Celadon Bowl with Pressed and Raise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4.6 | 입 지름 11.1 | 굽 지름 3.3

굽이 좁고 위쪽이 나팔처럼 벌어진 자그마한 완이다. 그릇의 안쪽 면에는 5개의 꽃잎 안에 국화꽃과 국화꽃 줄기를 각각 한 개씩 돌출새김하여 국화꽃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듯하다. 음각이나 상감에 비해 문양이 은은하게 비쳐 보여서 비색의 우아함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완에 사용된 돌출새김은 압출 양각(壓出陽刻) 기법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문양 틀(도범)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그릇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강진과 부안은 물론 전국에서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즐겨 사용되었다. 🌸





066

청자음각당초문완

靑瓷陰刻唐草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Flower and V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7 | 입 지름 18.6 | 굽 지름 5.7

굽이 작고 위쪽으로 벌어져 구연이 살짝 벌어진 형태의 완이다. 구연의 일부가 파손되고 번조과정에서 미세하게 기포가 터진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형태이다. 안 바닥에 굽 지름과 거의 같은 크기의 원각(圓刻)이 있고 구연 바로 아래에 한 줄의 음각 선을 돌렸다. 원각의 외부와 구연 아래 음각 선까지 꽃과 이파리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한 송이 꽃과 가지를 대칭으로 새겼고 그 여백의 한 곳에는 꽃을, 다른 곳에는 이파리만 새겼다. 굽은 지름이 작고 높이가 낮으며 너비도 좁다. 유약과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으며 비색을 띤다. 🌈





067

청자철채양각동자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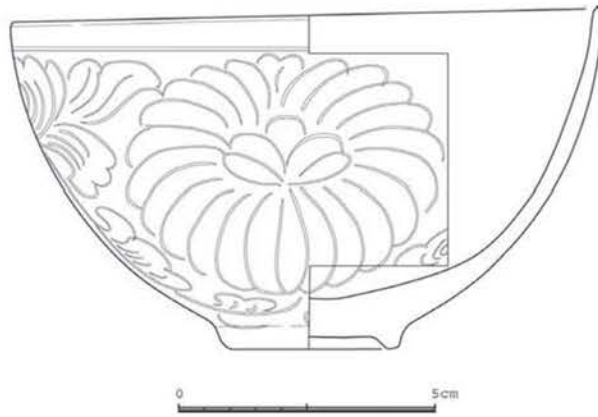
靑瓷鐵彩陽刻童子文碗

Celadon Bowl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ressed and Raised Child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2 | 입 지름 14.2 | 굽 지름 4.1

굽이 낮고 좁으며 안 바닥은 약간 동글게 벌어지다가 입까지 사선을 이루는 모양의 완이다. 그릇 안쪽은 압출 양각 기법으로 무늬를 넣고, 바깥쪽은 그릇 전체에 철분안료를 바르고 그 위에 유약을 입힌 철채(鐵彩) 기법을 사용하였다. 안쪽 면에는 다른 장식이 없이 어린아이 2명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한 아이는 서 있고 다른 아이는 앉아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바깥 면은 철화안료를 굽 안 바닥까지 발라서 검은색을 냈다. 태토와 유약은 매우 정선되어 표면이 매끄럽고 비색을 띠는데, 전체적으로 빙렬(氷裂, 식은테)이 많다. 🌈





068

청자음각보상화문완

靑瓷陰刻寶相花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Arabesque Baoxiang-hua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3 | 입 지름 11.5 | 굽 지름 3.7

기벽이 얇고 단정한 형태의 완이다. 입술에서 굽에 이르는 선이 동그스름하고 뽕뽕하지만, 굽이 매우 작아서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 그릇의 내·외면에 음각 기법의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데, 안쪽은 출렁거리는 파도의 물결이 촘촘하게 음각되어 있고, 바깥쪽 전체에는 보상화와 넝쿨 무늬를 한가득 새겨 넣어 울동감을 준다. 가느다란 선 무늬 위에 얇고 투명하게 입혀진 청자 유약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형태와 유색, 구운 방법 등으로 보아 고급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모양의 완은 주로 강진의 가마터에서 볼 수 있다. (김종춘 기증)





069

청자상감운학모란문완

靑瓷象嵌雲鶴牡丹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Crane and Peony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5.7 | 입 지름 12.5 | 굽 지름 4.4

공을 반으로 자른 듯 동그스름하게 반원형의 곡선을 이루는 형태의 완이다. 안 바닥 가운데는 지름 1cm 정도의 작은 원각이 있고 그 둘레로 11개의 꽃잎이 있는 큰 꽃을 상감하였다. 그 위쪽에는 4곳에 2겹의 원 안에 모란꽃 가지 무늬를 대칭으로 마주 보게 배치하였고 여백은 학과 구름을 상감하여 채웠다. 학의 몸체는 무늬 도장을 사용한 듯하고 구름은 거의 장식문양으로 변화되었다. 바깥 면에도 입구 가장자리에 구름과 학을 4곳에 넣은 띠 무늬로 장식하고 그 아래에 2겹의 원 안에 국화꽃 가지 무늬를 각각 대칭으로 새겨 넣었다. 나머지 여백은 넝쿨 무늬로 장식하였다. 태토에는 검은 반점이 섞여 있지만, 유약과 함께 품질이 좋은 편이며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





070

청자상감운학문완

靑瓷象嵌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7.0 | 입 지름 18.1 | 굽 지름 4.9

굽이 매우 낮고 작으며 옆선이 굽에서 입술까지 직사 선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완이다. 안 바닥 가운데는 16개의 꽃잎을 상감하고, 그 위쪽 4곳에는 날아가는 모습의 학을 대칭으로 배치한 후 여백 전체에는 흰색의 구름을 점처럼 상감하여 마치 빗방울처럼 보인다. 바깥 면에도 구름과 학의 장식 띠 아래로 2점 원 안에 국화꽃 가지 무늬를 각각 대칭으로 새겨 넣었고 여백에는 넝쿨 무늬 장식을 상감했다. 굽 안 바닥 중심에는 '木'자를 장식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짐작되는 부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다. 이 부호는 강진 용운리 47호, 사당리 38호, 41호 등의 가마터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청자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71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

靑瓷陽刻蓮瓣文筒形盞

Celadon Cup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 높이 9.4 | 입 지름 9.0 | 굽 지름 5.2

위아래의 넓이가 같은 원통형의 잔이다. 안쪽에는 무늬가 없고 바깥 면에만 12개의 연잎을 조각한 후 그 사이마다 다시 12개의 연잎을 조각하여 연꽃이 겹겹이 피어난 모양을 본뒀다. 잔 자체가 한 송이의 연꽃처럼 느껴져 꽃봉오리 안에 차를 담아 마시는 듯 하다. 연꽃은 먼저 가늘게 윤곽선을 음각한 후 면을 깎아 잎맥을 세워 입체감을 주었고, 뾰족한 꽃잎의 가장자리는 바탕을 완전히 긁어 돌을 새김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연잎의 가운데는 음각으로 가늘게 장식 무늬를 넣었다. 태도가 깨끗하고 비색의 유약도 고르며 은은한 광택이 아름답다. 굽 안 바닥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72

청자유개잔

靑瓷有蓋盞

Celadon Cup and Lid

고려 12세기 | 높이 5.8 | 입 지름 9.8~10.3 | 굽 지름 4.8 | 뚜껑 높이 3.6 | 뚜껑 입 지름 11.3 | 뚜껑 굽 지름 9.0

청자의 명칭에 ‘유개’가 붙은 것은 뚜껑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주자처럼 필수적으로 뚜껑이 만들어지는 기형을 제외하고 향로나 매병, 또는 이 잔처럼 처음부터 뚜껑과 함께 사용되도록 고안되고 뚜껑과 몸체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다. 이 잔은 크기와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음식물보다는 다소 귀한 재료 등을 담고, 자주 사용하기 위해 손잡이까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잔의 구연부에 한 줄의 음각 선을 돌려 단아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뚜껑의 넓은 전이 잔을 적절하게 덮어 용기 속의 재료가 외부와 잘 차단되도록 제작되었다. 🌈





073

청자잔

靑瓷盞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높이 7.9 | 입 지름 10.2 | 굽 지름 4.5

구연에서부터 바닥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살짝 팽창되었다가 입구에서 다시 좁아지는 팽이 모양의 잔이다. 기벽은 매우 얇고 무늬가 없어 소박하면서도 단아하다. 굽은 낮으며 옆면을 사선으로 깎았다. 태토와 유약이 잘 정제되어 표면이 부드럽고 유약의 색은 비색을 띠면서 광택이 좋다. 굽 안 바닥 중심에는 ‘ㅇ’의 표식이 있는데 도장 같은 도구를 이용해 찍은 것으로, 강진 사당리 23호, 27호 가마터와 상류층 거주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왕실 등 국가의 공납과 연관된 특정한 수요를 위한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74

청자상감국화문‘삼관’명잔

靑瓷象嵌菊花文‘三官’銘盞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m-Gwan'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6.8 | 입 지름 10.3 | 굽 지름 3.4

‘삼관(三官)’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잔이다. 잔 안쪽에는 무늬를 새기지 않고 바깥쪽에 국화꽃 가지를 흑상감 하였으며 고려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다. ‘삼관(三官)’의 글씨는 새긴 솜씨가 서툴고 글씨의 획이 여러 번 끊어져 있기도 하다. ‘삼관(三官)’은 당시 관청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도교(道敎)와 연관되었던 용어로 추정된다. 🇰🇷



075

청자상감국화문화형용두잔

靑瓷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Dragon 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7 | 입 지름 11.3 | 굽 지름 3.9

용머리 장식을 손잡이로 붙인 꽃 모양의 잔이다. 잔의 형태와 조각 기법, 용머리 장식 등으로 볼 때 특별한 용도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며 입술을 도려내고 외 측면 입술 부에 한 줄의 음각 선을 돌려 입술이 도톰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잔은 전체적으로 8개의 꽃잎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 면에는 국화꽃이 상감 되어 있다. 손잡이 역할을 하는 용머리의 모습이 매우 당당하며 역동적이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눈동자에는 철화로 점을 찍어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8개의 꽃잎은 중간에 음각 선으로 깎아 16면으로 만들고 빈 공간에 국화를 2단으로 시문 하였다. 금분이 칠해진 곳은 부분적인 수리를 한 흔적이다. 🌸



076

청자상감국화문화형용두잔

靑瓷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Dragon 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2 | 입 지름 9.3 | 굽 지름 4.6

용머리 장식을 손잡이로 붙인 꽃 모양의 잔이다. 잔의 형태와 조각 기법, 용머리 장식 등으로 볼 때 특별한 용도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며 입술을 도려내고 외 측면 입술 부위에 한 줄의 음각 선을 돌려 입술이 도톰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6장의 꽃잎은 중간에 2줄의 음각 선으로 깎아 12면으로 만들고 흑백상감으로 세로로 선을 새기고 빈 공간에 국화를 3단으로 시문하였다. 손잡이 역할을 하는 용의 머리와 목은 세밀하게 조각하였는데, 눈동자는 점토를 동글게 빚어 붙였고 목은 비늘을 표현하기 위해 반달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촘촘히 눌러 표현하였다. 굽은 안(속) 굽으로 바닥 가장자리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77

청자상감국화문잔

靑瓷象嵌菊花文盞

Celadon Flower 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7.6 | 입 지름 9.2 | 굽 지름 3.7

굽이 작고 오뚝하며 전체를 10개의 꽃잎 모양으로 깎아 만든 잔이다. 원래는 잔과 받침이 한 벌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하지 않는다. 입술 부분까지 둥글게 깎고 밖에서 다듬어 볼록하게 만들었다. 매우 얇고 작은 잔이지만 안쪽 옆면과 바닥까지 꽃 무늬로 음각하였고, 바깥쪽에는 10면에 국화꽃 무늬를 상감하였다. 몸체에 비해 굽은 작고 밖으로 벌어져 마치 꽃봉오리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굽 안 바닥 중심에는 'ㅇ'의 표식이 있는데 도장 같은 도구를 이용해 찍은 것으로, 강진 사당리 23호, 27호 가마터와 상류층 거주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왕실 등 국가의 공납과 연관된 특정한 수요를 위한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78

청자상감국화문통형잔

靑瓷象嵌菊花文筒形盞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10.7 | 입 지름 8.5 | 굽 지름 6.0

입 지름과 바닥 지름이 거의 같은 원통 모양의 잔이다. 바닥 면은 편평하며 굽은 바닥 면보다 좁다. 입 둘레에는 번개 무늬로 띠를 돌리고 바로 아래에 한 줄의 선을 하나 더 새겼다. 그 아래 중간 부분에는 3곳에 2겹의 동근 테두리를 새기고 그 안에 국화꽃 송이 무늬를 넣어 장식했다. 아래쪽에는 2줄의 선을 돌리고 그 밑에 꽃잎 안쪽을 4개의 점으로 장식한 연꽃잎 무늬 띠를 돌렸다. 굽 안 바닥에 '의찰(依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만들 당시에 새겨 넣은 것으로 만든 이의 이름 또는 쓰임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다. 🇰🇷



079

청자상감국화문잔

靑瓷象嵌菊花文盞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8.4 | 입 지름 11.8 | 굽 지름 5.1

굽이 작으며 옆선이 약간 볼록한 모양의 잔이다. 옆선은 굽에서 사선으로 올라서다가 꺾이듯이 볼록해지고 입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오므려졌다. 잔 바깥쪽 입술 바로 아래쪽에 도안으로 변형시킨 만(卍)자 무늬 띠를 흰색으로 상감하여 돌렸고, 굽 가까운 아래쪽에는 2줄의 단순한 선 무늬를 돌렸다. 중심부 4곳에는 2점의 원 안에 국화꽃 송이를 상감하였다. 비교적 고운 질감에 유약은 회색을 머금고 있으며 다른 잔들에 비하면 크기와 용량이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잔은 고려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후기로 가면서 많아진다. 🌿



080

청자상감선문탁잔

靑瓷象嵌線文托盞

Celadon Cup and Stand with Inlaid Line design

고려 14세기 | 총 높이 6.2 | 잔 입 지름 8.7 | 받침 입 지름 13.3 | 잔 굽 지름 4.3 | 받침 굽 지름 5.2

동그스름한 잔과 접시 모양의 받침이 한 벌로 된 탁잔이다. 잔은 안 바닥에 2줄로 된 동근 원과 그 둘레에 여의두 무늬 띠를 흰색으로 상감하였고, 바깥 면에는 위아래로 각각 2줄의 선을 두르고 그 중간에는 촘촘하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세로의 선을 번갈아 단순하게 상감하여 장식했다. 받침은 윗면에 잔을 고정하기 위한 턱이 없이 편평하다. 가운데 한 송이 국화꽃을 두고 그 밖으로 국화꽃 무늬를 열을 지어 돌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탁잔은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다. 잔과 받침 모두 태토가 어둡고 거칠며 유약은 얇고 색도 녹갈색을 띠어 고려시대 말기 청자의 쇠퇴하는 정황을 보여준다. 🌈



081

청자상감‘임신’명운학문잔

靑瓷象嵌‘壬申’銘雲鶴文盞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Im-Sin' and Cloud, Crane design

고려 1332년 | 높이 5.5 | 입 지름 10.5 | 굽 지름 3.8

구연이 살짝 안으로 굽어 있고 내부는 마치 구의 안쪽 면처럼 오목하고 널찍한 느낌이 들게 한 잔이다. 안쪽에는 구연 아래에 당초 무늬가 돌려져 있고, 도장으로 찍어서 상감한 구름과 학 4마리가 중심 무늬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에는 여의두 무늬로 둘러싼 2줄의 원 속에 ‘임신(壬申)’이라는 명문을 선명하게 새겨 넣었는데 임신년은 1332년으로 추정된다. 굽은 낮고 안쪽으로 기울여진 형태이다. 유약은 정선된 편이며, 굽 접지 면과 안 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다. 굽 접지 면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82

청자상감'지'명잔

靑瓷象嵌'地'銘盞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Ji'(Earth)

고려 14세기 | 높이 6.0 | 입 지름 8.8 | 굽 지름 4.3

잔의 바깥 면 3곳에 '지(地)' 자 가 흑상감 되어 있는 잔이다. 유물 중에는 '地'외에도 '天', '王' 등이 새겨진 다른 예가 있다. 이러한 유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와 밀접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이한 것은 백상감으로 된 이중의 원 안에 '地'를 흑상감 하면서 한 글자는 똑바로 새겼지만, 나머지 2개의 글자는 옆으로 뉘어진 상태로 새긴 점이다. 🌈



083

청자상감운학문고족배

靑瓷象嵌雲鶴文高足杯

Celadon Cup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12.7 | 입 지름 14.4 | 굽 지름 6.8

몸체보다 높고 좁은 굽을 붙인 잔이다. 동그스름하게 넓어지다가 입에서 살짝 벌어져 있고, 높은 굽은 바닥으로 가면서 끝이 나팔모양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잔의 안쪽에는 간략하게 만(卍)자 무늬 띠를 두르고 구름 사이로 학이 날고 있는 광경을 아름답게 새겼다. 바깥 면에도 간단한 만(卍)자 무늬 띠와 연잎장식 띠를 돌렸으며, 중간 부분 4곳에는 동근 테두리 안에 국화 무늬를 새겨 넣고 나머지 여백은 넝쿨 무늬로 채웠다. 굽은 세로로 길게 4개의 면으로 나누고 그 안에 국화꽃 송이를 2개씩 붙여 상감하였다. 이 잔의 화려함으로 보아 특별한 자리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 후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기종이다. 🌈



084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고려 12세기 | 높이 2.2 | 입 지름 10.5 | 굽 지름 3.0

작고 낮은 꽃 모양의 접시이다. 구연은 전(가장자리에 덧댄 부분)을 이루며 꺾여 내렸고, 입술 가장자리는 6곳을 같은 간격으로 도려내 탐스러운 꽃을 연상시킨다. 입술의 도려낸 부위를 뒷면에서 나무칼 같은 것으로 한 번 더 누르듯이 훑어내려, 마치 금속기를 두드려 주름지게 한 것 같은 자국을 만들었다. 안 바닥에는 동근 턱이 있는데 불룩하게 올라와 있다. 안 바닥에서 입술 가장자리의 도려낸 부분까지 가늘고 도드라진 선을 새겨 꽃의 모습을 나타내려 하였다. 태토에는 미세한 철 반점이 있고 유색은 탁한 편이다. 굽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



085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고려 12세기 | 높이 3.2 | 입 지름 15.4 | 굽 지름 9.9

무늬가 없는 꽃 모양의 접시로 전성기의 비색청자이다. 입술을 12장의 꽃잎 모양으로 블록하게 도려내어 위에서 보면 활짝 핀 꽃을 보는 듯하다. 도려낸 입술의 홈에 맞춰 접시 측면도 바깥에서 세로로 눌러 꽃 모양을 강조하였다. 그릇 형태가 단정하고 절제된 듯한 느낌이 들며, 비색 유약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고려 인종(1122~1146)의 장릉(長陵) 출토품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접시가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의 제작연대는 12세기 중반 전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굽은 바닥이 편평한 평저형으로 3곳에 구석을 받쳐 구웠다. 🌱



086

청자상감국화문능화형접시

靑瓷象嵌菊花文菱花形楪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5 | 입 지름 22.7 | 굽 지름 7.2 / 18.5

높이가 낮고 전체 모양이 능화 형태, 즉 마름모 모양을 한 접시이다. 이 접시는 능화형의 틀에 물레에서 성형된 접시를 얹어놓고 누르는 압출 양각 기법을 사용한 후, 그릇이 마르기 전에 무늬를 상감하여 만든 것이다. 접시의 바닥 가장자리에는 2줄의 양각 선이 그어져 있고 접의 위쪽에도 2줄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바깥쪽은 흰색, 안쪽은 검은색 선으로 상감 되어 있다. 능화형 접시는 강진 청자가마터에서 여러 점의 파편이 출토되었으나 완품으로 남아 있는 예는 많지 않다. 🌈



087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 접시

靑瓷壓出陽刻蓮花文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and Raised Lotus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0 | 입 지름 14.3 | 굽 지름 8.6

그릇 전체에 연꽃의 형태와 문양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만든 접시이다. 좁은 입술은 수평으로 꺾어 전(가장자리에 덧댄 부분)을 만들고 가장자리를 꽃 모양으로 도려내어 화려함을 더했다. 안 바닥과 옆면은 모두 하나의 무늬 틀을 이용하는 압출 양각(壓出陽刻) 기법을 사용하였다. 바닥 면 가운데에는 연꽃이 겹으로 활짝 핀 모양을 새겼는데 꽃잎의 잎맥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옆면은 튀어나온 꽃잎을 경계삼아 12개의 면으로 나누고 국화꽃 가지를 새겨 넣었다. 태토가 매우 곱고 유약이 고르게 잘 녹아 광택이 아름다운 최고급 청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접시와 내부 문양 구성이 비슷한 접시가 강화의 곤릉(坤陵, 사적 제371호)에서 발견되었다. (조혜경 기증) 🌈



088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靑瓷象嵌菊花文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1 | 입 지름 10.4 | 굽 지름 6.1

높이가 낮고 바닥 면이 편평한 형태의 접시이다. 그릇 전체에 압출 양각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와 문양을 만들었다. 옆선은 수평으로 꺾어 전(가장자리에 덧댄 부분)을 붙였고 가장자리를 꽃 모양으로 도려냈다. 바닥 면 가운데는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을 새겼는데, 꽃잎의 앞맥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여 화려한 그릇의 모양과 조화를 이룬다. 옆면은 꽃잎처럼 10개의 면으로 나누었으며 안쪽과 바깥쪽 모두 각각의 면에 활짝 핀 국화꽃 가지를 하나씩 넣었다. 이 접시의 무늬와 크기 등이 비슷한 유물로는 강화의 곤릉(坤陵, 사적 제371호)에서 발굴된 청자 접시가 있다. (이희관 기증)



089

청자양각상감연국문접시

靑瓷陽刻象嵌蓮菊文楪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and Raise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3 | 입 지름 14.5 | 굽 지름 7.7

옆면이 8개의 꽃잎 모양으로 조각된 접시이다. 그릇 안쪽은 압출 양각 기법, 바깥에는 상감 기법으로 무늬를 장식하였는데 주로 고려 후기(13세기 이후)의 제작 기법이다. 옆선은 수평으로 꺾어 전(가장자리에 덧댄 부분)을 붙였고 가장자리를 꽃 모양으로 도려냈다. 안 바닥 중심에는 연꽃 한 송이가 있고 그 둘레에 연꽃잎 무늬 띠와 여의두 무늬 띠를 차례로 돌려 새겼다. 바깥에는 8개의 면에 각각 국화꽃 가지 무늬를 한 개씩 상감하였다. 굽 안 바닥 중심에는 'ㅇ'의 표식이 있는데 도장 같은 도구를 이용해 찍은 것으로, 강진 사당리 23호, 27호 가마터와 상류층 거주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왕실 등 국가의 공납과 연관된 특정한 수요를 위한 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090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靑瓷象嵌菊花文碟匙

Celadon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6 | 입 지름 11.5 | 굽 지름 7.4

바닥 면이 편평한 접시이다. 안 바닥 가운데에는 2겹의 동근 구획선 안에 3송이의 국화를 새겨 넣었고, 구획선 밖에도 작은 꽃송이를 동일한 간격으로 6개 돌려 새겼다. 안쪽 측면에는 입술 바로 밑에 한 줄로 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모란꽃 6송이를 새겼다. 바깥 면에는 굽 위쪽으로 연꽃잎 무늬 장식 띠를 두르고, 국화꽃 6송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상감하였다. 태토와 유약은 품질이 좋아 차분하며 비색을 띠지만 굽 언저리에 유약이 덜 녹아 뿌옇게 된 부분이 있다. 굽은 넓고 낮으며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91

청자화문화형 접시

靑瓷花文花形碟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Flower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3.1 | 입 지름 8.7 | 굽 지름 5.4

바닥이 편평하며 옆선이 짧고 둥그랗게 올라선 작은 접시이다. 특히 옆면은 25개의 촘촘한 꽃잎 모양으로 볼록하게 입체감을 주었다. 안 바닥 가운데에는 꽃 무늬를, 가장자리에는 울록볼록한 그릇형태에 맞추어 파도 무늬를 돌려 그릇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접시의 바깥쪽 옆면은 굽은 조각칼로 꽃잎의 경계를 나누었으며 입술 가장자리도 반원형으로 동글동글하게 도려내었다. 태토에는 가는 모래가 약간 섞여 있고 군데군데 검은 점들이 보인다. 유약은 비교적 상태가 좋지만, 산화되어 갈색을 띠는 곳이 있다. 🌈



092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靑甞象嵌菊花文花形楪匙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3.8 | 입 지름 9.1 | 굽 지름 5.6

전체적으로 16개의 꽃잎 모양을 하고 있는 접시이다. 접시의 바깥 쪽 입술부분을 음각으로 깎아 16면으로 나누어 국화를 3단으로 시문하였고, 2줄의 백상감을 통해 입체감을 더했다.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접시와 잔의 중간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특별한 용도를 위해 주문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 바닥에는 일반적인 접시처럼 국화를 중심으로 백상감 된 여의두 무늬가 2줄의 원 무늬와 함께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특별한 용도에 걸맞은 접시 등의 받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



093

청자상감국화문팔각접시

靑瓷象嵌菊花文八角碟匙

Celadon Octagonal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4.5 | 입 지름 11.9 | 굽 지름 7.2

고려 시대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팔각형 접시로 옆면이 8면으로 되어 있다. 팔각형의 틀을 만들어 무늬를 새겨 구운 후 그 위에 물레로 만든 접시를 굳기 전에 덮어 누르는 압출 양각 기법으로 접시 안쪽의 무늬와 8면을 만들었다. 접시 바깥쪽 8면에는 맨 위와 아래에 한 줄의 흰색 선을 두르고 각각의 면에 흰색 선으로 사각형의 테를 두른 후, 그 안에 국화꽃 2송이가 붙은 꽃가지를 하나씩 상감해 넣었다. 기벽이 두껍고 무늬도 장식화되어 있어 고려후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태토는 정선된 편이지만 유약은 기포가 많아 탁하고,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94

청자상감'기사'명국화문접시

靑瓷象嵌'己巳'銘菊花文碟匙

Celadon Dish with Inlaid Inscription of 'Gi-Sa'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29년 | 높이 4.1 | 입 지름 12.4 | 굽 지름 6.7

안 바닥에 연대를 나타내는 간지(干支)로, '기사(己巳)'라는 글자가 흑상감 된 접시이다. 기사년은 1329년으로 추정되며, 국가에 공물로 바치는 도자기의 주문과 납품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새기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간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이며, 도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구연은 약간 도톰하게 외반 되었고 안 바닥 중앙에는 여의두 무늬, 기벽 안쪽 4곳에는 백상감 국화 무늬, 기벽 바깥 면 4곳에는 흑백상감 국화 무늬로 되어 있다. 굽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고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095

청자상감'임신'명접시

靑瓷象嵌'壬申'銘碟匙

Celadon Dish with Inlaid Inscription of 'Im-Sin'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32년 | 높이 4.6 | 입 지름 13.9 | 굽 지름 7.1

밑이 편평하며 옆선이 사선으로 곧게 벌어진 형태의 접시이다. 안 바닥에 '임신(壬申)'이라는 간지를 흑상감 했는데, 임신년은 1332년으로 추정되며 국가에 공물로 바치는 도자기의 주문과 납품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새기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굽는 과정에 밑바닥이 터져 길게 틈이 생겼다. 입술 바로 아래에는 가는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풀 무늬 장식띠를 돌렸고, 바닥에는 여의두 무늬 띠를 돌렸으며, 안쪽 면과 바깥쪽 옆면 5곳에 흰색과 검은색으로 국화꽃과 이파리를 상감하였다. 색조와 표면 질감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굽는 과정에서 산화된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



096
청자음각앵무문합

靑瓷陰刻鸚鵡文盒

Celadon Case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총 높이 4.7 | 입 지름 8.5 | 굽 지름 4.1

납작한 형태의 뚜껑을 갖춘 합이다. 합 형태의 그릇들은 구울 때 처음부터 뚜껑을 덮은 채 굽게 되는데, 이 합은 아래쪽 몸체와 뚜껑이 깔끔하게 잘 맞아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또한, 태토와 유약이 매우 잘 정제되어 곱고, 알맞게 구워져 유약의 빛깔과 광택이 청자 고유의 푸른 빛(翡色)을 띠어 아름답다. 뚜껑의 편평한 윗면에는 구름과 함께 앵무새 한 마리가 음각되어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그 가장자리의 3곳에도 구름 무늬를 새겼는데, 구름 무늬는 장수와 권위를 상징한다. 굽은 겉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으로 파내어 깎은 안(속) 굽이다. 🌈



097

청자상감모란문합

靑瓷象嵌牡丹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 총 높이 3.5 | 동체 입 지름 7.2 | 굽 지름 4.5

몸체가 납작하고 뚜껑이 있는 합이다. 뚜껑의 편평한 윗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연과 이어지는 부분이 경사져서 단을 이루는 형태이다. 뚜껑의 윗면에는 가장자리에 번개 무늬 띠를 흰색으로 상감하여 돌렸고, 중심에는 모란꽃 가지를 흑백상감으로 표현하였다. 비스듬하게 경사진 옆면에는 촘촘하게 세로로 음각 선을 넣어 국화꽃잎 처럼 표현해 조화를 이루었다. 합신(盒身)에도 입구에서 굽바닥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각 선을 새겼다. 뚜껑과 합신이 맞물리는 부위는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6곳에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쳤고, 굽은 얇게 깎았는데 굽 안 바닥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98

청자상감봉황문합

靑瓷象嵌鳳凰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hoenix design

고려 12세기 | 총 높이 4.3 | 동체 입 지름 8.1 | 굽 지름 4.7

납작한 형태의 뚜껑을 갖춘 합이다. 뚜껑이 있는 그릇들은 구울 때 처음부터 뚜껑을 덮은 채 굽는데, 이 합은 7곳에 내화토 비짐을 받쳐 구웠다. 뚜껑의 윗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연과 이어지는 부분이 경사져서 단을 이루는 형태이다. 뚜껑 윗면에 2마리의 봉황이 꽃봉오리를 입에 물고 서로 원을 그리듯이 대칭으로 새겨져 있다. 깃털의 세부를 표현할 때에도 검은색으로 가늘게 상감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태토와 유약이 잘 정선되어 맑은 비색을 띤다. 굽은 안쪽으로 파내어 깎은 안(속)굽이며 굽 안쪽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




099

청자퇴화국화문합

靑瓷堆花菊花文盒

Celadon Case with Underglaze White-Iron Painte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4 | 입 지름 8.5 | 굽 지름 7.5

납작한 형태의 뚜껑을 갖춘 합이다. 뚜껑이 있는 그릇들은 구울 때 처음부터 뚜껑을 덮은 채 굽게 되는데, 이 합은 아래쪽 몸체와 뚜껑이 완벽하게 잘 맞아 기능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무늬는 흰색의 흙과 철화안료를 사용하여 국화 무늬를 새겼는데, 뚜껑 윗면 중심에 5송이의 국화를 새기고 그 주위 4곳에 대칭으로 각각 넝쿨을 새겨 넣었다. 또 옆면에는 전체에 흰색 흙으로 넓게 바르고 그 위에 음각으로 촘촘하게 선을 그어 바탕의 청자색이 잘 드러나도록 장식했다. 태토에는 가는 모래가 일부 섞여 있고, 얇게 깎은 굽 안쪽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100

청자상감운학문합

靑瓷象嵌雲鶴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전반 | 총 높이 3.9 | 입 지름 14.5 | 굽 지름 10.2

납작한 형태의 뚜껑을 갖춘 합으로, 비교적 지름이 큰 편이다. 이 정도 크기의 합 속에는 3~5개의 작은 합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뚜껑의 가장 중심에는 활짝 피어 있는 커다란 꽃 무늬를, 그 둘레에는 구슬 무늬 장식띠를 돌렸다. 바깥으로는 2줄의 선을 돌리고 4마리 학과 빗방울(雨點)처럼 변형된 구름 무늬를 배치했다. 구슬 무늬와 학의 몸통은 도장을 찍어 규격이 같다. 몸체의 구연에도 번개 무늬 띠가 상감 되어 있다. 태토는 고운 편이지만 유약이 덜 녹아서 불투명하고, 굽바닥 면이 희뿌옇게 남아 있다. 굽 전체에 굵은 모래 비짐을 받쳐 구웠다. 🇰🇷

	<p>001 청자상감모란문정병 靑瓷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41.5 주구 입 지름 3.5 총체 지름 14.5 금 지름 9.4</p>		<p>011 청자병 靑瓷瓶 Celadon Bottle 고려 13세기 높이 30.6 입 지름 6.4 금 지름 10.8</p>
	<p>002 청자음각모란문매병 靑瓷陰刻牡丹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0.0 입 지름 6.0 금 지름 15.0</p>		<p>012 청자상감유로수금문병 靑瓷象嵌柳蘆水禽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Willow, Reed, Lotus, Bird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35.3 입 지름 8.4 금 지름 11.0</p>
	<p>003 청자철화보상화문매병 靑瓷鐵畫寶相花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Bosang-hwa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4.2 입 지름 6.3 금 지름 7.7</p>		<p>013 청자상감국화문병 靑瓷象嵌菊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34.0 입 지름 8.7 금 지름 12.2</p>
	<p>004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32.0 입 지름 6.1 금 지름 12.0</p>		<p>014 청자상감화채조종문병 靑瓷象嵌花卉鳥蝶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Flower, Reed, Bird,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24.1 입 지름 5.4 금 지름 6.1</p>
	<p>005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33.0 입 지름 5.5 금 지름 12.1</p>		<p>015 청자상감국화문표형병 靑瓷象嵌菊花文瓢形瓶 Celadon Gourd Shaped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30.5 입 지름 2.4 금 지름 10.8</p>
	<p>006 청자상감용문매병 靑瓷象嵌龍文梅瓶 Celadon Meiping Vase with Inlaid Dragon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33.4 입 지름 6.4 금 지름 10.5</p>		<p>016 청자상감당초문소병 靑瓷象嵌唐草文小瓶 Celadon Small Bottle with Inlaid Vine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10.1 입 지름 2.4 금 지름 3.6</p>
	<p>007 청자반양각연판문광구병 靑瓷半陽刻蓮瓣文廣口瓶 Celadon Bottle with Half-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1세기 높이 25.2 입 지름 7.5 금 지름 9.0</p>		<p>017 청자음각연판문표형유병 靑瓷陰刻蓮瓣文瓢形油瓶 Celadon Gourd Shaped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높이 8.4 입 지름 1.0 금 지름 3.0</p>
	<p>008 청자철화'금'명광구병 靑瓷鐵畫'金'銘廣口瓶 Celadon Bowl with Underglaze Iron-Painted Inscription of 'Gwum' 고려 12세기 높이 15.1 입 지름 4.1 금 지름 5.9</p>		<p>018 청자음각연판문유병 靑瓷陰刻蓮瓣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높이 4.5 입 지름 3.0 금 지름 5.2</p>
	<p>009 청자상감'천황전배'명과형병 靑瓷象嵌'天皇前排'銘瓜形瓶 Celadon Melon Shaped Bottle with Inlaid Inscription of 'Cheon-Hwang-Jeon-Bae' 고려 12세기 높이 19.3 입 지름 8.7 금 지름 6.8</p>		<p>019 청자음각엽문유병 靑瓷陰刻葉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eaves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0 입 지름 2.7 금 지름 4.0</p>
	<p>010 청자음각운문병 靑瓷陰刻雲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Cloud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30.4 입 지름 5.2 금 지름 11.9</p>		<p>020 청자철화점문유병 靑瓷鐵畫點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Spot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높이 7.7 입 지름 3.8 금 지름 4.5</p>

	<p>021 청자철화염문유병 靑瓷鐵畫葉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Leaves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2 입 지름 2.4 금 지름 2.9</p>		<p>031 청자주자 靑瓷注子 Celadon Pitcher 고려 12세기 총 높이 23.2 입 지름 11.0 금 지름 8.3</p>
	<p>022 청자상감모란문유병 靑瓷象嵌牡丹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4.6 입 지름 3.0 금 지름 5.5</p>		<p>032 청자표형주자 靑瓷瓢形注子 Celadon Gourd Shaped Pitcher 고려 12세기 높이 23.2 입 지름 3.2 금 지름 9.0</p>
	<p>023 청자상감운학문유병 靑瓷象嵌雲鶴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6.0 입 지름 2.5 금 지름 5.1</p>		<p>033 청자음각과당초문주자 靑瓷陰刻瓜唐草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cised Melon, Vine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4.4 입 지름 3.2 금 지름 9.0</p>
	<p>024 청자상감운학문유병 靑瓷象嵌雲鶴文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6.0 입 지름 2.1 금 지름 6.3</p>		<p>034 청자상감연판문주자 靑瓷象嵌蓮瓣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Inlaid Lotus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높이 23.5 입 지름 3.0 금 지름 9.7</p>
	<p>025 청자삼이호 靑瓷三耳壺 Celadon Three handles Jar 고려 12세기 높이 6.7 입 지름 5.0 금 지름 5.0</p>		<p>035 청자양각연판문주자 靑瓷陽刻蓮瓣文注子 Celadon Pitcher with Raised Lotus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높이 18.7 입 지름 4.8 금 지름 10.7</p>
	<p>026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고려 12세기 높이 35.0 입 지름 12.7 금 지름 10.8</p>		<p>036 청자철화선문과형주자 靑瓷鐵畫線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Line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2 입 지름 3.1 금 지름 3.2</p>
	<p>027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고려 12세기 높이 5.5 용체 지름 9.0 금 지름 3.4</p>		<p>037 청자상감연국모란과형주자 靑瓷象嵌蓮菊牡丹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Chrysanthemum,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23.6 입 지름 4.2 금 지름 10.0</p>
	<p>028 청자상감연당초문소호 靑瓷象嵌蓮唐草文小壺 Celadon Small Jar with Inlaid Lotus Vine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0 입 지름 4.3 금 지름 5.0</p>		<p>038 청자상감연화절지문과형주자 靑瓷象嵌蓮花折枝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Inlaid Lotus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18.4 입 지름 3.6 금 지름 10.4</p>
	<p>029 청자상감매로학점문사이호 靑瓷象嵌梅蘆鶴蝶文四耳壺 Celadon Four Handles Jar with Inlaid Apricot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23.1 입 지름 8.4 금 지름 12.0</p>		<p>039 청자퇴화연국문과형주자 靑瓷堆花蓮菊文瓜形注子 Celadon Melon Shaped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 높이 19.8 입 지름 3.5 금 지름 10.0</p>
	<p>030 청자상감운학문호 靑瓷象嵌雲鶴文壺 Celadon Ja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20.9 입 지름 10.3 금 지름 8.3</p>		<p>040 청자잔탁 靑瓷盞托 Celadon Cup Stand 고려 12세기 높이 3.9 입 지름 5.4 금 지름 3.9</p>

	<p>041 청자상감국화문잔탁 靑瓷象嵌菊花文盞托 Celadon Cup Stand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4.2 입 지름 12.6 금 지름 5.8</p>		<p>051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3 입 지름 10.7 금 지름 6.5</p>
	<p>042 청자상감 '왕' 명 잔탁 靑瓷象嵌王銘盞托 Celadon Cup Stand with Inlaid Inscription of 'Wang' (King) 고려 13세기 높이 6.6 입 지름 13.7 금 지름 7.7</p>		<p>052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瓷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7 입 지름 17.7 금 지름 7.0</p>
	<p>043 청자음각연화절지문퇴주기 靑瓷陰刻蓮花折枝文盞器 Celadon Vessel for Emptied Wine with Incised Lotus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9.9 입 지름 19.7 금 지름 5.8</p>		<p>053 청자화형대접 靑瓷花形大椀 Celadon Flower Shaped Bowl 고려 12세기 높이 6.1 입 지름 18.3 금 지름 5.0</p>
	<p>044 청자화형발 靑瓷花形鉢 Celadon Flower Shaped Bowl 고려 11세기 높이 8.3 입 지름 17.2 금 지름 6.3</p>		<p>054 청자상감모란문대접 靑瓷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5.6 입 지름 19.2 금 지름 6.1</p>
	<p>045 청자양각연판문발 靑瓷陽刻蓮瓣文鉢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높이 7.8 입 지름 17.0 금 지름 7.0</p>		<p>055 청자상감여지문대접 靑瓷象嵌荔枝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6.8 입 지름 19.0 금 지름 7.0</p>
	<p>046 청자음각앵무문발 靑瓷陰刻鸚鵡文鉢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7.5 입 지름 17.2 금 지름 6.0</p>		<p>056 청자상감여지문대접 靑瓷象嵌荔枝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Litchi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8.5 입 지름 20.3 금 지름 6.1</p>
	<p>047 청자상감운학문발 靑瓷象嵌雲鶴文鉢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8.1 입 지름 17.9 금 지름 6.3</p>		<p>057 청자상감화엽문화형대접 靑瓷象嵌花葉文花形大椀 Celadon Flower Shaped Bowl with Inlaid Petal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6.3 입 지름 18.6 금 지름 6.5</p>
	<p>048 청자개합 靑瓷蓋盒 Celadon Bowl and lid 고려 10세기 높이 14.0 입 지름 17.5 금 지름 6.0</p>		<p>058 청자상감'경오'명유로수금문대접 靑瓷象嵌庚午銘柳蓮水禽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Byeong-U' and Willow, Reed, Bird design 고려 1330년 높이 6.4 입 지름 19.3 금 지름 6.9</p>
	<p>049 청자상감운학국화문개합 靑瓷象嵌雲鶴菊花文蓋盒 Celadon Bowl, Lid and stand with Inlaid Cloud, Crane,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14.6 뚜껑 지름 18.2 대접 지름 17.2 받침 지름 16.2 대접 금 지름 6.3 받침 금 지름 6.5</p>		<p>059 청자상감'임신'명운학문대접 靑瓷象嵌壬申銘雲鶴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Im-Sin' and Cloud, Crane design 고려 1332년 높이 5.7 입 지름 16.7 금 지름 6.5</p>
	<p>050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瓷陽刻蓮瓣文大椀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전 높이 4.8 입 지름 16.5 금 지름 6.6</p>		<p>060 청자상감화채조충문대접 靑瓷象嵌花卉鳥蟲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Flower, Bird,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8.5 입 지름 19.7 금 지름 7.1</p>

	<p>061 청자상감'왕'명대접 靑瓷象嵌王銘大碟 Celadon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Wang (King)' 고려 14세기 높이 7.0 입 지름 15.6 금 지름 5.6</p>		<p>071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 靑瓷陽刻蓮瓣文筒形盃 Celadon Cup with Raised Lotus'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2세기 높이 9.4 입 지름 9.0 금 지름 5.2</p>
	<p>062 청자양각연판문완 靑瓷陽刻蓮瓣文碗 Celadon Bowl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pattern 고려 11세기 높이 6.0 입 지름 15.6 금 지름 6.0</p>		<p>072 청자유개잔 靑瓷有蓋盃 Celadon Cup and Lid 고려 12세기 높이 5.8 입 지름 9.8~10.3 금 지름 4.8 뚜껑 높이 3.6 뚜껑 입 지름 11.3 뚜껑 금 지름 9.0</p>
	<p>063 청자완 靑瓷碗 Celadon Bowl 고려 11세기 높이 6.2 입 지름 15.9 금 지름 6.0</p>		<p>073 청자잔 靑瓷盃 Celadon Cup 고려 12세기 높이 7.9 입 지름 10.2 금 지름 4.5</p>
	<p>064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靑瓷壓出陽刻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Pressed and Raise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2 입 지름 16.7 금 지름 3.6</p>		<p>074 청자상감국화문'삼관'명잔 靑瓷象嵌菊花文'三官'銘盃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m-gwan'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6.8 입 지름 10.3 금 지름 3.4</p>
	<p>065 청자압출양각국화문완 靑瓷壓出陽刻菊花文碗 Celadon Bowl with Pressed and Raise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4 입 지름 11.0 금 지름 3.2</p>		<p>075 청자상감국화문화형용두잔 靑瓷象嵌菊花文花形龍頭盃 Celadon Dragon 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3.7 입 지름 11.3 금 지름 3.9</p>
	<p>066 청자음각당초문완 靑瓷陰刻唐草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Flower and Vine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7.7 입 지름 18.6 금 지름 5.7</p>		<p>076 청자상감국화문화형용두잔 靑瓷象嵌菊花文花形龍頭盃 Celadon Dragon 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4.2 입 지름 9.3 금 지름 4.0</p>
	<p>067 청자철채양각동자문완 靑瓷鐵彩陽刻童子文碗 Celadon Bowl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ressed and Raised Child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2 입 지름 14.2 금 지름 4.1</p>		<p>077 청자상감국화문잔 靑瓷象嵌菊花文盃 Celadon Flower 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7.6 입 지름 9.2 금 지름 3.7</p>
	<p>068 청자음각보상화문완 靑瓷陰刻寶相花文碗 Celadon Bowl with Incised Arabesque Baoliang-hua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4 입 지름 11.9 금 지름 3.5</p>		<p>078 청자상감국화문통형잔 靑瓷象嵌菊花文筒形盃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10.7 입 지름 8.5 금 지름 6.0</p>
	<p>069 청자상감운학모란문완 靑瓷象嵌雲鶴牡丹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Crane and Peony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5.6 입 지름 12.3 금 지름 4.5</p>		<p>079 청자상감국화문잔 靑瓷象嵌菊花文盃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8.4 입 지름 11.8 금 지름 5.1</p>
	<p>070 청자상감운학문완 靑瓷象嵌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7.0 입 지름 18.1 금 지름 4.9</p>		<p>080 청자상감선문탁잔 靑瓷象嵌線文托盃 Celadon Cup and Stand with Inlaid Line design 고려 14세기 총 높이 6.2 잔 입 지름 8.7 받침 입 지름 13.3 잔 금 지름 4.3 받침 금 지름 5.2</p>

	<p>081 청자상감'임신'명운 학문잔 靑瓷象嵌'壬申銘雲鶴文盃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Im-Sin' and Clou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5.5 입 지름 10.5 금 지름 3.8</p>		<p>091 청자화문화형접시 靑瓷花文花形碟 Celadon Flower Shaped Dish Flower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3.1 입 지름 8.7 금 지름 5.4</p>
	<p>082 청자상감'지'명잔 靑瓷象嵌'地'銘盃 Celadon Cup with Inlaid Inscription of 'Ji(Earth) 고려 14세기 높이 6.0 입 지름 8.8 금 지름 4.3</p>		<p>092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靑瓷象嵌菊花文花形碟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3.8 입 지름 9.1 금 지름 5.6</p>
	<p>083 청자상감운학문고족배 靑瓷象嵌雲鶴文高足杯 Celadon Cup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12.7 입 지름 14.4 금 지름 6.8</p>		<p>093 청자상감국화문팔각접시 靑瓷象嵌菊花文八角碟 Celadon Octagonal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4.5 입 지름 11.9 금 지름 7.2</p>
	<p>084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碟 Celadon Dragon 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2 입 지름 10.5 금 지름 3.0</p>		<p>094 청자상감'기사'명국화문접시 靑瓷象嵌'己巳'銘菊花文碟 Celadon Dish with Inlaid Inscription of 'Gi-Sa'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29년 높이 4.1 입 지름 12.4 금 지름 6.7</p>
	<p>085 청자화형접시 靑瓷花形碟 Celadon Flower Shaped Dish 고려 12세기 높이 3.2 입 지름 15.4 금 지름 9.9</p>		<p>095 청자상감'임신'명접시 靑瓷象嵌'壬申'銘碟 Celadon Dish with Inlaid Inscription of 'Im-Sin'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32년 높이 4.6 입 지름 13.9 금 지름 7.1</p>
	<p>086 청자상감국화문능화형접시 靑瓷象嵌菊花文菱花形碟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2.5 입 지름 22.7 금 지름 7.2 / 18.5</p>		<p>096 청자음각앵무문합 靑瓷陰刻鸚鵡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7 입 지름 8.5 금 지름 4.1</p>
	<p>087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접시 靑瓷壓出陽刻蓮花文花形碟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Pressed and Raised Lotus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3.0 입 지름 14.2 금 지름 8.8</p>		<p>097 청자상감모란문합 靑瓷象嵌牡丹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3.5 입 지름 8.5 금 지름 7.2</p>
	<p>088 청자상감국화문화형접시 靑瓷象嵌菊花文花形碟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2.1 입 지름 10.4 금 지름 6.1</p>		<p>098 청자상감봉황문합 靑瓷象嵌鳳凰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Phoenix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0 입 지름 12.3 금 지름 9.0</p>
	<p>089 청자양각상감연국문접시 靑瓷陽刻象嵌蓮菊文碟 Celadon Flower Shaped Dish with Inlaid and Raise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4.3 입 지름 14.5 금 지름 7.7</p>		<p>099 청자퇴화국화문합 靑瓷堆花菊花文盒 Celadon Case with Underglaze White-Iron Painte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3.4 입 지름 8.5 금 지름 7.5</p>
	<p>090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靑瓷象嵌菊花文碟 Celadon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2.6 입 지름 11.4 금 지름 7.3</p>		<p>100 청자상감운학문합 靑瓷象嵌雲鶴文盒 Celadon C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4세기 높이 3.9 입 지름 14.5 금 지름 10.2</p>

강진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The 100 Relic Collection of
the Gang jin Celadon Museum

발행	강진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사당리 127) Tel. (061) 430-3752 Fax. (061) 430-3739
제작	(주)지누커뮤니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주월동 1274-2) Tel. (062) 419-0030
인쇄	종로인쇄 광주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7 (금동 191-2동) Tel. (062) 227-2139
인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2012년 5월 10일

값 20,000원



© 강진청자박물관 2012

Copyright© 2012 Gangjin Celadon Museum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강진청자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강진청자박물관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강진청자박물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The 100 Relic
Collection of the
Gangjin Celadon
Museum

 강진청자박물관

값 20,000원

